

한국 여성환경운동과 대안먹거리네트워크

-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에 대한 사례연구 -

Women’s Environmental Movement and Alternative Food
Networks in South Korea: A case study of “Marché@” urban
farmer’s market

2021. 09. 30

최하니 (특정주제 연구자)

제 출 문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 여성환경운동과 대안먹거리네트워크: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 사례를 중심으로”의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연구 원 : 최하니(특정주제연구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재)숲과나눔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초록

연구원	최하니	구분	특정주제연구자
연구제목	한글	한국 여성환경운동과 대안먹거리네트워크: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에 대한 사례연구	
	영문	Women’s Environmental Movement and Alternative Food Networks in South Korea: A case study of “Marché@” urban farmer’s market	
연구기간	2021. 03. 01. ~ 2021. 08. 30.		
색인어	한글	대안먹거리네트워크, 농부시장, 여성환경운동, 먹거리주권, 젠더	
	영문	Alternative Food Networks, Farmer’s Market, Women’s Environmental Movement, Food Sovereignty, Gender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의 계보 위에서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가 구축되는 방식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대안먹거리네트워크의 독특한 사례인 ‘마르쉐@’ 농부시장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먼저 그동안 대안먹거리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와 젠더, 또는 여성환경운동에 대한 연구 사이에 간극이 있었음에 주목하고, ‘마르쉐@’ 농부시장을 사례를 통해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과 소비체계를 만드는 다양한 실천들에 여성의 역할이 있어왔음을 서술한다. 나아가 대안먹거리네트워크로서 농부시장을 다각적인 여성주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그동안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왔던 먹거리 생산, 소비, 요리, 관련 지식에의 전달과 폐기물의 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먹거리 실천들이 그동안 과소정치화되어왔으며, 여성의 역할로 젠더화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심 한 가운데에 등장한 ‘마르쉐@’ 농부시장은 기존에는 가정 안으로 제한되어 있던 먹거리 실천의 재현을 공식화하고, 상호 공유-모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컨대 ‘마르쉐@’ 농부시장 사례는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소비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몸들의 존재를 논의하는 공식적이며 실험적

인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마르쉐@’ 농부시장은 여성들을 주된 행위자로 불러들이며, 기존의 대안먹거리네트워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에 대한 대화, 상호 돌봄의 장치, 젠더포용적인 먹거리 주권에 대한 인식, 일상 실천의 중요성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마르쉐@’ 농부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안먹거리네트워크와 농부시장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안적인 먹거리 실천의 동인이 기존의 젠더화된 역할 또는 여성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먹거리 안전, 주권 등의 의제들뿐 아니라 제각각의 몸들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보이며 확장되어온 것임을 드러낼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이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소비체계를 만들어 오는데 기여했던 지점들을 살펴본다. 끝으로는 연구사례로서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의 사회 정치적 배경과, 특징을 정리하고,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그 대안적인 실천의 양태를 분석할 것이다.

요약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세 장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장은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요약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에 일조하였던 여성들의 역할을 포착하기 위해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의 계보를 살펴본다. 마지막 세 번째 장에서는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라는 여성주도의 농부시장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한국사회의 여성환경운동의 역할과 가정 안팎에서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온 먹거리 실천들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의의를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은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대안적인 실천양태를 만들어 온 여성들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접근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 하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첫 번째 장은 대안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먹거리 체계, 먹거리 안전과 먹거리 주권, 그리고 대안먹거리네트워크(alternative food networks) 개념을 설명한다. 대안먹거리네트워크란, 생활협동조합, 농부시장, 공동체 지원농업, 직거래 급식 등을 포함하며,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시장이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독과점되는 체계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자생적 조직들을 통칭한다. 즉, 대안먹거리네트워크는 먹거리 체계의 독립성, 안전성, 그리고 농부들의 주권적 권리-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사지을 권리, 종자에 대한 권리 등을 의제화 하며 먹거리 체계의 대안적 가치를 발굴해나가는 사회·정치·경제적 기구 또는 장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안먹거리네트워크의 일례로서 농부시장을 살펴볼 때 우리는 각 농부시장 사례가 견인하고 있는 먹거리 체계의 대안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먹거리 생산과 소비 윤리의 재규정 양상과 그 과정을 함께 사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농부시장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농부시장이 제안하는 가치를 정리해왔다. 첫째는 농산물 교환의 장으로서 농부시장의 역할은 화폐경제를 통한 거래의 장치일 뿐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는 계기로 작동한다는 면이다. 이것은 농산물의 거래 과정의 사회적

가치, 효용, 상호 돌봄이 자리할 여지 들을 마련하였다. 이는 초국화, 산업화, 전산화되어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던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서로를 덜 착취하는 방식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완충기능을 한다. 둘째로, 이와 같은 농부시장에 배태된 호혜성은 농부시장에서 특정 인종, 계급, 젠더들의 독자적이고 자생적인 먹거리 확보가 가능하도록 인도한다. 계층적 상황이 비슷한 이용자들 간의 대화는 보다 내밀해지며 먹거리를 둘러싼 규범은 보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재조정 되거나, 의제 또는 담론으로 응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는 농부시장의 장소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세계적으로 증가 추이에 있으며, 각국의 농부시장들의 여러 사례를 탐색하고 있다. 나아가 그 특이성을 인종적 관점에서, 계급적 관점 등에서 분석하며, 농부시장이 가진 정치·경제·사회적 의의를 분석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농부시장의 먹거리 실천의 규범을 재조정하는 성격을 한국의 사례에 적용해 이해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접근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북서유럽권역의 국가들, 일본 등의 농부시장은 도심이나 교외근교 등 다양한 지리적 입지를 건너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농부시장의 경우 도심이 아닌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소극적으로 발생할 뿐, 농부시장이 도심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한국의 국토계획 양태와 관련이 있다. 특히 중앙집중적인 도시화로 인해 인구와 토지이용의 수요가 특정 도시에 과도하게 밀집되며 토지이용 수요와 도시의 위생, 그리고 먹거리 안전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온 것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을 제한하여 더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고, 생산하고 그 생산과 소비 체계에 대한 대안적인 양태를 탐색해나갈 도시민들의 권리를 축소하는 계기로 작용해왔다.

이와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의 확충을 위한 창의적인 실천과, 먹거리 안전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책임은 ‘가정 내’에 국한된 역할을 부여받은 ‘여성’, ‘주부’, ‘엄마’들에게 돌아갔다. 이는 한편으로는 먹거리를 둘러싼 돌봄 노동을 여성들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이들의 노동을 비가시화하였다. 나아가 다른 한편으로는 젠더에 따른 역할에 대한 공감을 배경으로 먹거리에 실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략,

그에 대한 감흥들을 공유하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넓혀갈 수 있게 하였다.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은 이러한 젠더에 따른 역할의 제한, 대안적인 먹거리 네트워크의 필요, 농부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마주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도시민들에의 기회의 박탈에 대한 자생적이고 저항적인 실천들을 배경으로 진화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의 농부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흐름과 그 기반이 되어온 실천 담론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의 두 번째 장은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실천적 흐름들 중 다양한 먹거리 운동/실천과의 접점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의 사상적 기반이 되어온 다음의 세 가지 여성과 환경의 관계성에 관한 담론을 소개한다. 첫째,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 둘째, 젠더와 먹거리 주권, 셋째, 페미니스트 관점에서의 ‘물질성(materiality)’ 논의가 그것이다.

생태여성주의가 자연환경과 여성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환경운동 진영에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을 설명하고자 하였다면, 그 이후 젠더와 먹거리 주권의 논의는 서구의 탈식민주의 연구의 발달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발전의 부산물로서 생겨난 환경오염 등의 위험성에 더 가까이 노출된 여성 노동자들의 취약성, 환경부정의 문제의 젠더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 두 논의는 서구에서는 1960년대 생태여성주의가 태동하던 시기부터, 한국에서는 생태여성주의 논의가 도입된 198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여성 행위자들의 ‘모성’이나 ‘여성성’이 내재적이거나 본성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쟁, 여성에게 자연환경과 몸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점차 심화 되어 여러 ‘생태여성주의자’ 또는 여성과 환경운동을 교차해서 이해할 필요성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최근 페미니스트 관점에서의 ‘물질성(materiality)’에 대한 풍부한 논의의 증가는, 여성과 자연환경의 연대의 규범적 필요성이 아닌, 물질로서의 필수불가결한 연결과 그 관계성에 주목하며 이러한 기존의 비판을 수용한다. 이들은 다양한 몸들의 존재와 각 몸들의 위치성(정치적 의사결정 참여 기회의 불균형, 계급/계층/젠더/섹슈얼리티 등에 따른 고유한 경험의 차이 등)의 차이와 교차에 주목한다. 또한, 젠더화된 돌봄 노동의

역할을 수행하는 타자화된/수동적인 주체로서가 아닌, 고유한 물질로서 몸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다양한 행위성과, 그에 관한 자기기술(auto-ethnography)을 통한 심화된 이해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의 몸들이 수행하는 실천들과 그 정치적 힘(또는 잠재력)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젠더와 자연환경, 먹거리, 돌봄에 대한 논의는 이와 같은 상호 비판을 통해 공진화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의 필요성 또한 커지며, 대안먹거리네트워크의 양태 또한 다양하게 진화되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흐름을 교차해서 볼 필요성에 주목한다. 이는 특히 한국 농부시장의 확산에 주요하게 기여한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마르쉐@’ 농부시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2012년 시작되었다. ‘마르쉐@’ 농부시장은 사단법인으로 독립하기 이전까지 당시 생태여성주의를 단체의 핵심가치로 표방하던 ‘사단법인 여성환경연대’를 우산조직으로 두는 등 여성환경운동의 흐름 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현재까지 9년간 ‘마르쉐@’ 농부시장은 농부, 요리사, 수공예가, 기업인, 주부, 직장인, 봉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행위자들을 연결하고, 농부시장 공간으로 불러들이며 자생적으로 지속·확장해왔다.

‘마르쉐@’ 농부시장은 먹거리 실천 양태와 행위자들의 경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도심 한가운데에서 일상의 먹거리 실천을 대안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재현하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마르쉐@’ 농부시장은 점차 도심에서의, 여성주도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본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사례의 특이성에 주목해 ‘마르쉐@’ 농부시장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한다. 첫째, ‘마르쉐@’ 농부시장은 대화를 강조함으로써 농부시장을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아닌, 다양한 비인간과 인간의 집합으로서 상호이해에 기반한 돌봄-공간으로 조정해갔다. 둘째, 다양한 인구 구성과 인구 밀집을 배경으로, 다양한 방식의 대안적인 먹거리 실천 및 체계의 가능성을 숙의하는 문화를 이끌어왔다. 셋째, 기존의 먹거리 체계와 여성의 관계 양태의 다양성을 언어화하고, 일상실천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사례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이해는 그동안 대안먹거리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와 젠더, 또는 여성환경운동에 대한 연구 사이에 놓여 있던 간극을 좁히고, 먹거리 일상실천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목 차

I. 연구목적	10
II.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란?	13
1.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를 향하여	13
가. 먹거리 체계	13
나. 먹거리 안전(food security)	15
다. 먹거리 주권(food sovereignty)	17
2. 대안먹거리네트워크로서 농부시장	19
가. 대안먹거리네트워크(Alternative Food Networks)란?	19
나. 농부시장(farmer's market)에 관한 연구의 동향	20
III. 도시형 농부시장의 발생과 젠더	24
1. 농부시장연구에의 페미니스트 접근을 위한 개념적 자원들	24
가.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	24
나. 젠더와 먹거리 주권	26
다. 페미니즘 이론에서의 물질성(materiality) 논의들	27
2.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흐름과 먹거리	30
가.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흐름	30
나. 생활협동조합의 비공식 주체들	31
다. 도시형 농부시장의 발생	33
IV. 사례연구: 여성주도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	38
1. 도시 먹거리 문제의 심화와 ‘마르쉐@’ 농부시장의 발달	38
2. 사례연구의 설계	41
2.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마르쉐@’ 농부시장 읽기	47
가. 돌봄-공간 되어가기	48
나. 먹거리 정치의 일상성과 젠더: 일상실천‘들’에 대해 대화하기	55
다. 젠더 포용적 먹거리주권으로 나아가기	59

V. 요약 및 결론 66

참고문헌 68

표 목차

[표 III-1] 한국의 대안먹거리네트워크의 양상 29

[표 IV-1] 서울시 등록 시민시장 중 농산품을 취급하는 시장 목록 33

[표 IV-2] 농부시장 ‘마르쉐@’의 기획·운영의 흐름 및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흐름 · 39

[표 IV-1] 현장답사 일시 및 장소 40

[표 IV-2] 문헌연구 자료의 특징 41

[표 IV-3]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A. 운영진 43

[표 IV-4]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B. 출품팀원 43

[표 IV-5]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C. 기타 운영·참여자 43

[표 IV-3] ‘대화’의 플랫폼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54

그림 목차

[그림 II-1] 먹거리 체계: 요인 및 관계 12

[그림 II-2]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의 비전 14

[그림 IV-1] ‘마르쉐@’ 농부시장에서 설거지를 하는 봉사자들 52

[그림 IV-2] 농부와와의 대화 52

[그림 IV-3] 안내판을 읽고 신중하게 분리수거하는 시장 참여자들 52

[그림 IV-4] ‘마르쉐@’ 농부시장의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실천들 (1) 56

[그림 IV-5] ‘마르쉐@’ 농부시장의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실천들 (2) 56

[그림 IV-6] ‘마르쉐@’ 농부시장의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실천들 (3) 56

I. 연구목적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는 편리함 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환경문제를 심화시켰다(관련하여 조효제, 2013; 윤병선·김철규·송원규, 2013; 윤병선, 2015 등 참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한국의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대안적인 먹거리 네트워크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1980년대부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양태로 이끌어왔다. 첫째, 생활협동조합 등 먹거리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생을 위한 유통 모델의 발달이 있었다. 둘째, FTA 반대시위 등에서 먹거리 주권 의제를 설정하고 결의해왔다. 셋째, 먹거리 자급자족 공동체의 구성을 탐색하고 실험해왔다(관련하여 김철규, 2008b; 허남혁, 2009; 윤병선·김철규·송원규, 2013; 김태완·김철규, 2016 등 참조).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과 소비 체계의 구조와 의의뿐 아니라 농업정책 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어져 왔다(1장 2절 참조).

한편, 이와 같은 먹거리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운동과 대안 먹거리 생산-소비 모델의 발전에 있어 여성의 역할은 비대했다. 가부장제에 입각한 성역할 분리를 배경으로, 한국 근대사회에서의 먹거리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필요한 돌봄 실천들은 여성의 역할로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문순홍, 2001a; 2001b, Cairns and Johnston, 2015). 그런데도 현재까지 젠더관점에서 대안 먹거리 네트워크나 먹거리 주권 문제에 접근하는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정은정·허남혁·김홍주, 2011; 김효정, 2011; 김신효정, 2018). 특히 2010년대 이후로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로서 기능하기 시작한 한국의 농부시장에 대한 젠더 관점의 분석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의 먹거리 주권 운동의 일환으로써 농부시장을 만들어가는 실천을 보다 비판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성들이 주도해온 ‘마르쉐@’ 농부시장에서 결집된 다양한 먹거리 실천 사례들에 주목하고,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농부시장이 운영되는 양태를

포착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의 계보의 실천적 담론적 흐름을 검토할 것이다. 여성 시민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기획, 운영되어온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은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의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와 전략들을 기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례는 한국사회에서는 번번이 실패하던 도시형 농부시장을 처음으로 국내에 사회·문화적으로 정착시킨 사례라는 특이성을 갖는다. 농부시장(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 등의 도시나 도시 근교에서 주로 농산물의 유통 거리를 줄여, 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김원동, 2017; 2018; Hinrichs, 2000; Brown, 2001, 2002)부터 발달해왔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 정부 차원에서 해외의 농부시장들을 모델로 국내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 내 요일장터와 농협 로컬푸드 매장의 발달로 이어졌다(허남혁, 2018). 이후 2012년에 6월, 도시농업의 발달, 귀농·귀촌에 관한 관심의 증가를 계기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농부의 시장’이 만들어졌으나, 그 문화적 확산과 정책적 보완에 가장 주요하게 이바지한 사례는 동해 10월 시민 3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획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확산·지속하여온 ‘농부시장 마르쉐@’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대안 먹거리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동안 농부시장의 사회문화적 정착이 요원 하였던 것은 그동안의 농부시장은 그 구현보다 법제화, 정책화, 법인화 등의 제도화를 우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마르쉐@’ 사례는 여성들의 일상적 실천이 결집한 형태를 띠며, 시민들의 먹거리 문제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계기가 되어 ‘제도화’보다도 먹거리 주권에 대한 규범적 인식이 운동을 이끌어나간 형태이다. 그러므로 이는 앞서 거론한 3가지 먹거리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의 시민적 발현으로, 권리에 기반을 둔 먹거리 운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범들은 그동안의 먹거리 운동의 계보 위에서 합의되어 온 것으로 사례 농부시장의 구현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역할과 실천 양태들을 제안하며 구체화해왔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환경운동을 지속해왔던 여성들의 사적인 네트워크와 전략들의 축적을 토대로 운동의 공적인 성격보다 실천이 갖는 대안성, 그리고 실천들 간의 관계성, 조직의 수평적인 의사소통

문화 등을 중요시 여겨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례가 먹거리 주권을 향한 규범적 이상을 실천들로 구체화하는 양태에 주목한다. 또한, 기존의 정부나 남성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제도화’에 방점을 두었을 때와 달리 여성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실천들을 중심으로 농부시장을 만들어가는 행위성의 차이에 주목한다. 이러한 접근에서 본 연구는 먹거리 주권의 젠더 포용적 실천 전략들을 ‘마르쉐@’ 농부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한다. 구체적으로는 ‘마르쉐@’ 농부시장의 안과 밖에서 어떤 특별한 행위자들(소농, 활동가, 손님, 요리사, 수공예가 등)을 중심으로 상호 고취적인(mutually empowering) 관계 맺기와 의사소통 전략이 농부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해왔는지를 탐색한다. 본 논고를 통해 어떻게 물리적 공간으로서 시장이 어떻게 환경적, 사회적인 인식과 실천양식을 여성 농부들과 먹거리 실천가들이 함께 나누는 장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물리적 시장 공간은 단순히 먹거리의 안전성이나 가격만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관적 감정, 나아가 보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주관적 효능감을 고취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여 더욱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밝힐 것을 기대한다.

II.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란?

1.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를 향하여

본 절은 젠더 관점의 논의에 앞서 먹거리 체계의 대안적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간략히 정리한다. 먼저, 대안적 먹거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실천적 개입이 어렵게 하는 먹거리 체계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과 그 한계를 비판적으로 탐색한다. 나아가 먹거리 체계의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먹거리 체계를 둘러싼 분배적 불평등, 자연환경에 대한 돌봄 노동을 여성, 지역민, 농부 등에게 전가하는 환경 부정의(injustice) 문제, 점차 심각해지는 먹거리 위험(food risk)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하기 위한 대안 담론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여성들의 먹거리 실천의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 질문을 확장된 지평 위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가. 먹거리 체계

먹거리 체계란 먹거리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구조적 체계를 의미한다(Tansey and Worsley, 1995; 박민선 2009: 8에서 재인용). 이러한 먹거리 체계에 대해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존에는 구분되어 논의되던 먹거리 안전문제와 식량 수급 불안정의 문제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게 하고, 20세기 이후 거대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상품화, 사유화, 독점화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한다(김철규, 2008a; 박민선 2009). 초국적 기업들의 종자 판매, 유통망의 독점화 등으로 점차 먹거리의 생산은 단일품종-대량생산-대량소비의 모델로 전환되었다(김철규, 2008b: 9).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는 심화하였고, 식품안전의 위기는 사회 전반의 위험(risk)과 함께 증대¹⁾되었다. 이는 점차 단일 국가의 정부 차원에서, 또는 먹거리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됐다(Friedsmann

1) 관련하여 올리히 백 등의 논의를 참고하라. 올리히 백은 과학기술의 고도화, 경제 및 정치체제의 고도화로 인해 증대되는 불확실성에 의해 사회는 점차 잠재된 위험(risk)을 키우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올리히 백, 1997). 백의 이러한 논의는 먹거리 체계의 초국화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먹거리 체계가 초국화 되고 동시에 고도로 분화됨에 따라 먹거리 생산과정, 유통과정, 소비과정 등 각각의 과정들이 감내하는 잠재적 위험(risk) 또한 다각화되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위협하는 위험들은 점차 개인, 지자체, 단일 국가 차원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되어왔다.

& McMichael, 1989; 박민선 2009; McMichael 2009).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먹거리 체계의 요인과 관계를 그림 II-1과 같이 도식화한다. 그림II-1은 먹거리의 생산, 공정, 분배, 소비라는 다양한 수행들과 이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노동력, 재화, 교통통신망 등의 인프라, 정책 뿐 아니라 먹거리에 대한 지식까지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과 복잡한 이해관계의 얽힘은 먹거리 체계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동시에 작용해야 하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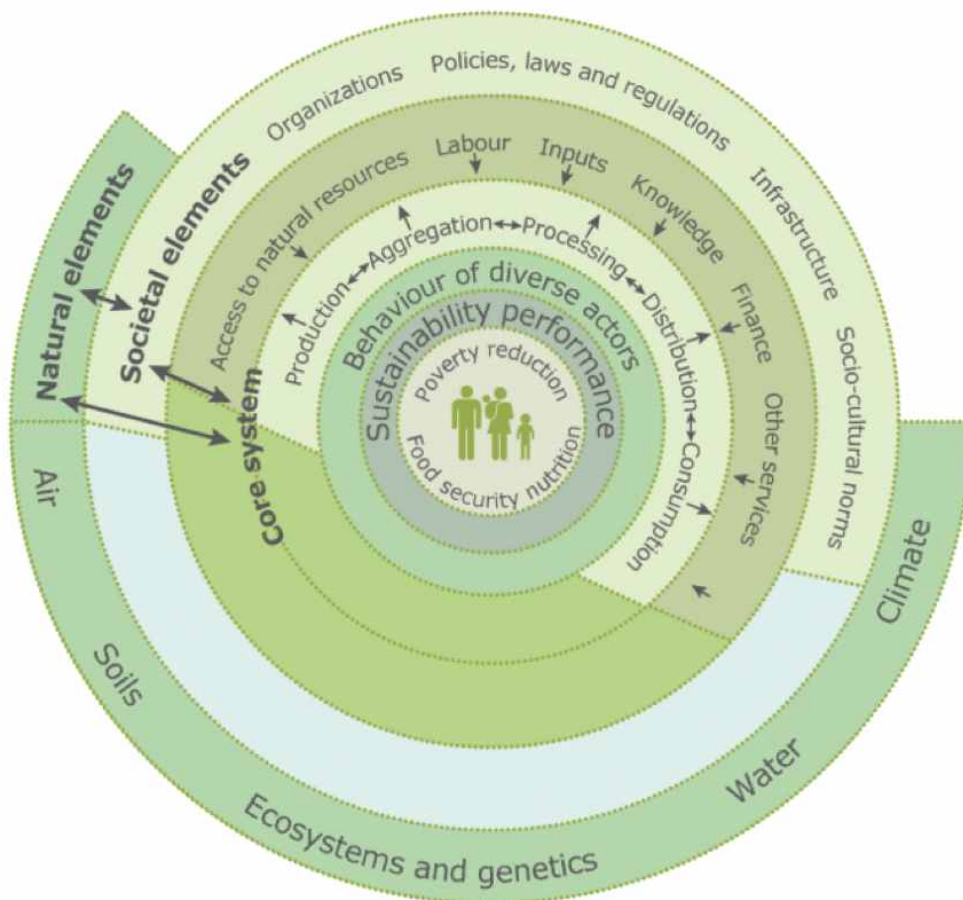


그림 II-1. 먹거리 체계: 요인 및 관계 (출처: [FAO](#), 2017)

이처럼 위의 도식은 인간 행위자들과 자연적 요인들 간의 연결을 그려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과 소비 사이에 공정 및 분배를 담당하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기반물질들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또한, 행위자들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 그들의 행위성과 관계할 수 있는 재화, 지식, 노동에의 경험 등이 직접적으로 공유되기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급과 생산의 행위자들 간의 거리가 먼 먹거리 체계의 현실은 먹거리 생산자와 공급자 간의 상호이해를 불충분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즉, 이와 같은 먹거리 체계의 복잡성은 먹거리 생산자들과 소비자들 모두 먹거리 공정과 분배, 그리고 체계의 구조를 바꾸거나 생산-소비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먹거리 생산-소비의 규범 또는 지식에의 생산에는 직접관여를 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먹거리 체계의 대안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먹거리 체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 생산과 소비 간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먹거리 생산-소비 경험 사이의 틈을 좁히고, 먹거리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직접 먹거리 체계를 구상하는 데에 이바지할 가능성을 증진하고, 그 기반으로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대두된다. 이를테면 먹거리 소비자들은 먹거리 생산, 농업 어업 노동을 직접 경험하거나 농부들과 어민들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조를 마련하는 것은 이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먹거리 안전(food security)

FAO는 먹거리 안전(food security)를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으로 정의한다(FAO, 2001; 김소연 2020: 234). 즉 먹거리 안전이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의 안정성과 이를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민들의 먹거리 선택 역량과 인프라의 확충, 나아가 이에 대한 지자체, 시민단체, 국가, 국제협약체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후반 세계적으로 공통된 식품 가격의 폭등과 기후변화, 식량 부정의(food injustice)문제 등의 심화를 계기로 먹거리 위기(food crisis)에 대한 논의가

증가 됨에 따라 확산 되어왔다(Blay-Palmer, 2016; Patel, 2006; Rosin, Stock and Campbell, 2013). 국내에서도 2008년을 전후로 한미 FTA 체결 반대 운동,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 중국발 멜라닌 파동 등을 겪으며 먹거리 위기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 되었는데, 이는 이후 여러 지자체의 먹거리 계획에의 수립으로도 이어져 왔다(허남혁, 2009; 김철규·김진영·김상숙, 2012: 118; 송원규, 2020).

2017년 제안된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은 이와 같은 지자체의 먹거리 안전에 관한 관심을 드러낸다.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비전으로 제시된 네 가지 ‘건강’, ‘보장’, ‘안전’, ‘상생’은 각각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 ‘모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먹거리 안전관리의 강화’,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안정성에의 확보’ 등으로 설명된다(그림 II-2). 이러한 설명에서 미루어 봤을 때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은 안전성과 관리의 문제를 비전으로 두며 먹거리 안전의 확충을 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2.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의 비전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2017)

다. 먹거리 주권

반면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망의 구축, 관리와 분배 체계의 확립뿐 아니라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당사자들의 일상에서의 지속가능성, 즉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권리에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또한 활발히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주체들의 권리의 문제는 ‘먹거리 주권(food sovereignty)’라는 개념을 통해 논의되어왔는데, 이들은 먹거리 주권을 먹거리 안전에 선행해야 할 보다 급진적인 개념으로 제안한다(Patel, 2009; Boyer 2010; Rosset et al., 2011; Wittman, 2011; Kerr, 2013).

먹거리 주권 개념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아 캄페시나라는 국제 소농운동 단체에서 처음으로 주창되었다(La Via Campesina, 1996). 이는 먹거리 생산과정에서의 권한과 먹거리와 농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평등한 참여 등 먹거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LVC, 1996; Agarwal, 2014; 김철규 2008a²⁾). 이는 “종자의 채종선택, 파종권을 비롯해 식량의 생산에서 판매, 소비에 이르는 여러 단계에서 전략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자유이자 역량”으로 정의된다(권영근, 2009: 216; 조효제, 2013: 280에서 재인용). 이처럼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주체들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먹거리 주권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따라 농산물 무역자유화, 농업정책에서 시장지향적 구조조정 정책, 공업식 농업과 공장식 축산, 초국적 농식품 독점자본에 따른 농민의 빈농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안전에 선행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조효제, 2013: 279-280).

이와 같은 먹거리 주권 개념은 위로부터의 먹거리 공급관리를 강조하는 먹거리 안전을 비판적으로 담지하고, 젠더, 인종, 계급 간의 차별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나 먹거리 부정의(food injustice)의 문제, 나아가 농업 및 지역 정책에의 수평적

2) “먹거리 주권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중이 농업과 먹을거리에 대한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국내 농업의 생산 및 무역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규제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자립적이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농산물을 시장에 저가로 쏟아내는 덤핑을 제한할 권리이다. 먹거리 주권은 무역을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민중이 안전하고 건강에 이로우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물을 먹을 권리를 존중하는 무역정책 및 무역관행의 공식화를 지지한다(Via Campesina 2001; 김철규 2008a: 26에서 재인용).”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Patel 2009; Boyer 2010; Schanbacher 2010). 이러한 측면에서 먹거리 주권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지역의 사례연구는 젠더 관점의 연구로 이어져 왔다. 여성 소농들은 가부장적 사회 내의 여성으로서, 또한 규모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농사지을 수 있는 권리 등에서 취약한 소농으로서 이중적으로 주변화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역에서의 의사결정권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농법, 종자 선택권, 유통과 가공의 방법,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에서 또한 배제되어왔다(Wittman et al. 2010; Carney 2012; Oliver 2016; Patel 2012; Kerr 2013; Giunta 2014; Kerr et al. 2019).

먹거리 주권 개념은 이처럼 안전한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문제의식 뿐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먹거리 체계를 다양한 행위자들의 권리에 기반한 것으로 바꾸어갈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또한, 먹거리 주권에 관한 다양한 사례연구들은 먹거리 주권에 대한 인식이 기존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던 먹거리 실천 양태의 다양성과 비공식화 되어왔던 먹거리를 둘러싼 돌봄 노동들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데에 용이함을 보인다. 이를테면 김효정(2011), 김신효정 (2018)는 토종 종자를 계승하고 관리해온 중요한 행위 주체가 농촌의 여성들이었음을 주목하며, 이들이 초국화 되어가는 먹거리 생산 체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종의 다양화에 이바지함을 밝힌 바 있다.

2. 대안먹거리네트워크로서 농부시장

가. 대안먹거리네트워크(Alternative Food Networks)란?

앞서 서술하였듯 먹거리 체계의 초국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독과점, 생산과정에서의 농민의 착취,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등의 문제는 20세기 이후의 근대화, 세계화, 도시화에 따라 꾸준히 심화되어왔다. 한 편 이에 대한 대항으로서 대안 먹거리 운동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어왔다(McMichael, 2008, 2014). 한국에서도 2008년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운동, 중국발 멜라민 파동 등을 기점으로 증가 되어온 먹거리 위기 인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항운동이 전개되어 왔다(허남혁 2009; 김철규·김진영·김상숙 2012: 118). 이러한 운동들은 한미 FTA 체결 반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등의 구호를 중심으로 거리에서 일어났을 뿐 아니라, ‘한살림’, ‘한국생협연대’, ‘두레생협연합’, ‘행복중심생협’ 등의 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한 지역중심의 먹거리 생산과 소비 체계의 회복을 도모하는 다양한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소비 구조의 발달과 심화로도 이어졌다(허남혁 2009).

초국화, 독과점화되어가는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의 대안을 모색하는 국내 대안 먹거리 운동은 조직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공정무역 운동, 느린 먹거리 운동(slow food movement), 먹거리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화 등으로 이어졌다(허남혁 2009: 163).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천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먹거리를 소비함으로써 탄소 발생을 줄이고, 지역의 먹거리 생산자들과의 상생 또는 공생을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 농부시장, 공동체 지원농업(‘꾸러미 사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이하 CSA), 직거래 급식(farm to school program) 등의 대안적인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모델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다(김철규, 2008a; 2011). 이러한 일련의 대항적 실천들은 ‘대안 먹거리 네트워크(alternative food networks: AFNs)’ 또는 ‘대안 먹거리 이니셔티브(alternative food initiatives: AFIs)’로 불리며 국내외 사회학, 지리학, 지역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왔다(McMichael, 2005, 2017; 김원동 2010; 윤병선 2010).

국내의 경우, 다양한 대항운동 중에서도 특히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 왔는데, 한국에서 생협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이래로

현재까지 꾸준히 대안 먹거리 운동의 중심점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생활협동조합 운동은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이루어진 한국의 근대화, 도시화로 인해 생겨난 농촌과 도시 간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기획되거나 농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전되며 먹거리 주권의 증대에 꾸준히 이바지해왔다. 이러한 생활협동조합 운동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압축적인 근대화에 따라 발생한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생한 대항운동이 쌓아온 시민사회의 역량을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며 다양한 참여자들을 모아왔다.

2000년대 이후, 더 다양해지는 사회운동의 참여, 발생 양태에 따라 국내의 대안 먹거리 운동 또한 다양한 양태로 분화된다. 이러한 분화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등으로 대표되는 담론을 중심으로 규합되던 기존의 대안 먹거리 운동은 점차 단일한 담론이나 규범에 따라 규합되기보다 개인적 차원의 미시적 실천을 연결하는 느슨한 네트워크의 형태로 변모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먹거리 체계에 관여하는 소비자와 기업의 역할 또한 강조되는데, 이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감쇄한다는 한계를 낳지만, 동시에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물을 먹을 권리를 존중하는 유통정책 및 유통 관행의 공식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게 한다는 이점을 갖게도 한다(김철규·김진영·김상숙2012: 120).

나. 농부시장(farmer's market)에 관한 연구의 동향

농민시장(farmer's market) 또는 농부시장³⁾은 이와 같은 대안 먹거리 운동의 다각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대안먹거리네트워크의 한 양태이다. 국내의 농부시장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농부시장을 대안먹거리네트워크의 하나의 양상으로 보고 시장의 사회·문화·경제적 기능과 의의를 밝혀왔다. 이러한 연구는 Hinrichs(2000)의 연구를 중심으로 농부시장이 단순히 경제적 기능만이 아닌, 농부와 소비자의 마주침을 중시하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독특성을 보이는 점에 주목한다.

3) 농민시장 또는 농부시장은 모두 ‘farmer's market’의 번역어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경우 ‘농민시장’으로 일컬어져왔다. 이에 근거할 때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선행 연구와의 통일성을 위해 ‘농민시장’이란 표현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례, ‘마르쉐@’ 농부시장의 경우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이라는 공식명칭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혼동을 줄이기 위해 ‘농부시장’으로 통일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은 칼 폴라니의 배태성(embeddedness)으로, Hinrihis(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꾸준히 농부시장의 먹거리 체계로서의 경제적 기능(시장성)에 농민과 소비자의 마주침에서 발생하는 호혜적 경험, 윤리의식 등의 사회적 기능이 배태되어 시장 안에서 동시적으로 작용함을 밝힌다(김원동, 2011, 2016, 김철규, 2011, 2020; 윤병선·김선업·김철규, 2012; 김종덕, 2004; 2007; 2009; Hinrichs, 2000; Colin, 2003; Alkon, 2008). 즉, 농부시장은 농부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물리적, 자연적 거리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며, 단순히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양태의 사회적 효용(예를 들면 신뢰와 상호배려의 판매인-소비자 공동체로서, 먹거리 교육의 공간으로서, 먹거리 불평등을 완화하는 공간으로 호혜성을 갖는다(Kneen, 1993; 김철규, 2011: 115에서 재인용).

지리학적 관점에서 농부시장에 접근한 연구들은 농민과 도시 및 근교 거주민을 잇는 네트워크로써 지리적 특성에 더욱 주목한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농부시장이 가진 규범적인 의미가 농부시장의 인종적, 지리적 특이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음을 보여왔다(Eastwood, Brooker, and Gray, 1999; Alkon, 2008, 2009; Colasanti, Conner and Smalley, 2010; Bubinas, 2011; Hayden and Buck, 2012; Turner and Hope, 2014; Smithers, Lamarche and Joseph, 2008; Francis and Griffith, 2011; 김원동, 2011, 2014, 2020). 일례로 Alkon(2008)은 두 지역의 농부시장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각 지역의 환경문제나 인식이 어떻게 농부시장의 윤리를 관계적으로 재조정하는지를 관측하였다. 또한 Colasanti, Conner와 Smalley (2010)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7개의 집단을 포커스그룹으로 농부시장의 유입요인을 분석하여, 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농부시장의 유입요인과 사회경제적 효과가 상이함을 보였다.

요컨대 농부시장은 그 입지에 따라 문화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농부시장의 장소성과 입지에 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의 농부시장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그나마 영미권을 중심으로 농부시장의 공간 디자인이나 입지 현황 분석 등은 미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 초부터 이어져 왔으며, 최근 조경 분야의 연구들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⁴⁾, 국내 농부시장을 사례로 한 연구는 전혀 없다. 대다수의 농부시장에 관한 사례연구가, 각 농부시장이

가진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이성, 활기차거나 그렇지 않은 독특한 분위기 등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시장의 입지나 장소성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국내 농부시장의 생성 시기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은 2010년대 초~중반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농부시장의 장소성에 대한 연구는 드물지만, 최근 들어 농부시장의 공간적 특이성을 탐색하는 인류학적 방법론의 연구들과 정치사회학,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 페미니스트 지리학 관점의 연구들은 농부시장을 만들어가는 행위자들의 성격과 양태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이 있다(Slocum, 2008; Turner and Hope, 2014; Smithers, Lamarche, and Joseph, 2008; Starr, 2010; 이해진, 2012⁵⁾; Turkkan, 2019). 예를 들면 Slocum(2008)은 미니애폴리스 농부시장을 사례로, 농부시장이 인종적으로 분화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Slocum은 연구의 인식론적 배경으로 Grosz의 몸-페미니즘 이론(corporeal feminist theory)을 불러오는데, 이를 통해 주체/객체, 사회/자연, 남성/여성, 장애/비장애 등의 이분이 아닌, 관계성의 측면에서 농부시장을 이해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므로 Slocum에 따르면 농부시장은 몸의 스케일에서 체현되는 곳이고, 인종 간의 마주침의 장이라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반면 Turner and Hope(2014)는 농부시장의 행위자로 비인간 행위자에 주목한다. 이들은 농부시장에서 인간과 비인간들의 다양한 마주침이 발생하는 것이, 농부시장이 대안 먹거리 네트워크의 주춧돌로 기능할 가능성을 담지한다고 본다.

이처럼 농부시장은 농작물을 비롯한 먹거리와 인간 행위자, 농부와 소비자 등을 마주치게 하는 공간을 열어 다양한 논의와 색다른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도심에서 발생하는 농부시장의 경우, 농촌 지역에서만 가능한 먹거리 생산과 돌봄에의 경험과 도시화 이후의 시가지에서 가능한 문화적 경험, 먹거리 소비 이후 폐기물 처리의 경험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대안먹거리네트워크로서 농부시장은 개인적 차원의 먹거리 실천을 연결하고 조직하는 방식의 대안 먹거리 운동의 장(場)으로

4) Francis and Griffith, 2011, Choe, Jeong, & Sim, 2013, Crespi-Vallbona, and Dimitrovski, 2016 등 참조

5) 이해진(2012)은 대안먹거리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먹거리 시민' 개념을 불러온다. 이해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먹거리 시민은 주로, 40~50대 여성 주부이며, 교육과 직업, 소득수준 및 먹거리 위험 인식과 시민행동성향이 일반 소비자들보다 높다.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장에서 먹거리 소비자들은 ‘윤리적 소비자’일 뿐 아니라, 먹거리 주권 운동의 주체로서 먹거리 실천의 윤리를 조정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부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부시장은 생활협동조합이나 CSA(꾸러미 사업) 등 더 느슨한 네트워크인 열린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농부시장이 열린 공간이자, 대안먹거리네트워크 라는 두 가지 특이성을 갖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부시장이 사회문화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작위의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분명한 대안적 가치를 끌어내어 참여자들이 정치적 자기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III. 도시형 농부시장의 발생과 젠더

1. 농부시장 연구에의 페미니스트 접근을 위한 개념 자원들

제 II 장에서 살펴보았듯,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국내외의 시민사회 전반에서의 시도는 그동안 다양한 양상의 먹거리 정치로 이어졌다. 특히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의 구상으로서 농부시장은 이와 같은 다양한 양상의 먹거리 정치를 연결하는 열린 공간이자 논의의 장(場)으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농부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먹거리 정치의 양상은 규모(scale)의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직업, 계급, 계층, 젠더에 따른 일상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만들어 낸다. 그중에서도 본 절에서는 먹거리 정치와 젠더를 연결하는 기존 연구의 흐름 살펴보고 본 연구를 그사이에 위치 짓고자 한다.

가.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

먼저 살펴볼 먹거리 정치와 젠더에 대한 분석의 인식론적 흐름은 여성과 환경의 관계를 다루는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 담론과 연결된다. 전통적으로 가정 및 공동체의 먹거리 소비, 가공, 폐기물 처리 등의 몸들을 돌보는 노동은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어왔다. 먹거리 실천의 젠더화 된 역사적 흐름으로 인해 여성들은 먹거리를 비롯한 자연환경에 대한 보다 많은 전술 또는 유대감을 갖게 된다(Mies and shiva, 1993; Cairns and Johnston, 2015). 이러한 먹거리와 환경, 몸을 돌보는 노동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경험들은 여성들을 각국 환경운동의 흐름 위에서 다양한 의제를 제기하게 한다(Agarwal 1992, 1997; Biehl 1991; 문순홍 2001a, 2001b, 2006; Kerr, 2014; 이상화, 2011). 이러한 맥락 위에서 여성과 환경의 연결, 또는 관계,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생태여성주의’라는 담론적 흐름을 양산한다.

생태여성주의 담론의 발생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는 1970년대 서구사회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여성주의 의제의 발전과 함께 진전되어왔고, 마리아 미스와 반다나 시바의 탈식민주의 운동에서 자연의 회복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생태여성주의”

개념을 통해 공식화된다(Mies and Shiva 1993). 이후 생태여성주의는 여성의 취약성과 환경을 착취하는 공통적 원인으로 제국주의적, 가부장적 질서가 있음을 비판하며 점차 여성운동진영과 환경운동진영 사이의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발전해왔다(신필식 2007). 나아가 생태여성주의 담론은 여성주의진영과 생태주의진영 사이에서 여러 굽직한 논쟁들을 거치며 다양한 분파로 나뉘게 된다. 이에 따른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심층 생태여성주의”, “사회적 생태여성주의”, “문화주의 생태여성주의” 등을 분류하는데, 이러한 분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대립이라는 냉전질서 위에서의) 정치적 입장과 여성성(femininity)을 본질적으로 보는지 또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둔다.

이러한 논쟁의 흐름 안에서, 생태여성주의를 둘러싼 가장 대표적인 논쟁은 여성성이 모성 또는 자연에 대한 유대감을 본질적으로 포함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 논쟁은 점차 격양되어,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인식을 일정 부분 단선화시키기도 한다.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여성주의 진영 일반의 주된 비판은 여성과 자연의 유대감을 강조하거나, 환경 또는 먹거리에 대한 돌봄의 주체로 ‘여성’을 호명하는 것은 결국 여성들에게 과중한 돌봄 노동에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 위에서 ‘생태여성주의’는 여성주의 진영 내에서는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서 여성의 권리회복을 위한 정치적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정치적이고 실천적인 담론이기보다 비합리적이거나 감성적인 호소로 여겨지게 된 면이 있다.

한국의 경우 영미권에서의 논쟁과 비슷한 논의를 거쳐왔지만, 덜 격양된 어조로 논의가 이어져왔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서구의 생태여성주의 논의가 번역되어 도입되었는데, 당시 본질주의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비판은 전방위적으로 있던 반면, 생태여성주의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실천 규범들 - 가부장 질서의 해체, 자연에 대한 착취의 해체, 여성 농업인들의 자기결정권에의 확충, 환경운동에서 여성 주체들의 존재에 대한 주목, 정치적 의사결정권에 있어서 여성의 입지 보장 - 은 환경운동 진영 전반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비록 여성주의 진영과 생태여성주의 진영의 이론적, 담론적, 철학적 논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여성운동진영과 환경운동진영 안의 여성들 간의 연대는 느슨하게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져왔다.

이처럼 생태여성주의 담론의 도입 이후,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의 내부에서의 여성 주체들의 환경적 취약성을 이해하고, 상호 고취적(mutual empowering) 실천 규범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여성-환경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공통으로 제안하는 시민단체, 조직 등이 발달해왔다. 대표적으로는 1989년 ‘전국농민위원회’에서 ‘전국여성농민위원회’가 분리되어 독립된 기구로 출범하고, 국제소농운동 조직인 비아캄페시나(La Via Campesina)와 연대한 사례가 있으며, 1999년 ‘여성환경연대’가 여성과 환경 공동의 의제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단체로 출범한 것 또한 주요한 사례이다. 뿐만아니라 여성민우회에서도 보다 안전한 먹거리 확충을 위해 생활협동조합을 출범시켰으며, 한 살림, 녹색당 등의 생활협동조합, 정치조직 등에서도 여성 의제를 중심으로 소모임이 지속되는 등, 한국의 생태여성주의는 담론적이기 보다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며 확장되어왔다.

나. 젠더와 먹거리 주권

먹거리 주권 확보를 위한 여성들의 미시적 실천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다양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축적되어왔다(김신효정, 2018, 2014; Kimura, 2010; Kimura and Katano, 2014; Kerr, 2013, 2014; Kerr et al, 2019; Singh 2001).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주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인도 등의 저개발국가의 여성들의 환경적 취약성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으나 한국, 대만, 일본 등의 동아시아의 먹거리 주권운동 사례에서 여성의 역할을 관측하는 사례연구에서도 소수 이루어진 바 있다(박영숙, 2008; 김효정, 2011; Kimura and Nishiyama, 2008). 이는 동아시아 공통의 가부장적 질서가 먹거리 주권 운동에서 여성의 참여를 특징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먹거리 주권 운동에서 여성의 참여는 조직적으로 결집 된 것으로 드러나거나, 혹은 남성 중심의 먹거리 주권 운동의 양태와는 사회문화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김효정, 2011; Kimura and Nishiyama, 2008).

특히 위와 같은 연구는 여성의 의사결정권한이 축소되어 있음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먹거리 주권 개념은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행위자들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여성들의 참여는 생산자로서 혹은 소비자로서, 가공하는 요리사로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먹거리 노동의 측면에서 비공식화되어왔기 때문이다(문순홍, 2001a, 2001b; 신필식, 2007; 박지은, 2020; 정숙정, 2021).

그러므로 먹거리 주권 운동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다양한 양태의 먹거리 실천들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일상적 먹거리 노동에서 가진 위치성과 젠더에 따른 차별, 의사결정권한에서의 배제하고/되는 양태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먹거리 주권을 증진하기 위한 일련의 실천들에서 여성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제도적, 법적 보조의 가능성과 정치적 동원 과정에서의 조직문화를 통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여성들의 먹거리 주권 운동에의 참여 양태에 관한 연구는 몹시 미진한 실정이다. 최근 <농촌사회>에서 농촌과 여성을 주제로 기획된 특집호에서는 “농촌가족노동의 분화와 여성의 역할(박지은, 2020)” 등의 젠더적 관점에서 농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제기되었는데, 이는 고무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여성과 먹거리 실천, 여성과 농촌, 여성과 먹거리 주권 등에 대한 연구는 그간 연속성 있게 지속하지 못했던 터라 향후 관련 연구가 장기적으로 축적될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의 물질성(materiality) 논의들

여성 주체들의 행위성이 과소 정치화되고 공적 의사결정 구조로부터 주변화되어온 배경에서, 일군의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주체와 객체, 자연과 문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이분법적 사유를 해체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물질 페미니즘(material femininisms) 또는 유물론적 페미니즘(materiality feminism)으로 불리거나 신유물론(new-materialism)으로 일컬어진다. 일전의 생태여성주의를 둘러싼 여성성이 본질적인 것인가의 논쟁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문화구성적 생태여성주의의 발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 구성적으로 구성된 ‘여성성’을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이 지속해왔던 먹거리를 둘러싼 돌봄에의 실천들이 가진 일상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인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관점의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논의는 페미니스트 문화연구 중 주체와 객체와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고 인간 몸에 대한 확장적 사고를 제안하는 도나 해러웨이 Donna Haraway(1991), 엘리자베스 그로스 Elizabeth A. Grosz (1994), 캐런 배러드 Karen Barad (2003), 스테이시 앨라이모 Stacy Alaimo (2010) 등의 몸과 물질성에 대한 페미니즘 이론연구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물질성에 대한 페미니즘적 고찰은 주체와 객체의 이분적 사유를 넘어 다양한 소수자적 몸들의 경험을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서술해가는 공동의 작업의 일환으로서 정동 이론(Affect Theory, 브라이언 마수미, 그레고리 시즈웁 등)을 차용한 일련의 몸-문화 연구들(배넷, 2020; 김현철, 2015; 허성원, 2019; 최하니, 2021 등을 참고)과 궤적을 함께한다. 이러한 점에서 물질주의 페미니즘 관점의 연구는 몸 페미니즘(corporeal feminism) 연구들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물질주의 페미니즘은 인간 이외의 물질들과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몸 페미니즘 진영은 여성들을 포함한 소수자들의 체현된 경험과 몸들 간의 연결-관계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먹거리와 젠더를 보는 관점에서 몸 페미니즘 또는 물질주의 페미니즘의 개입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는 먹거리에 대한 연구로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Cairns과 Johnston(2016)의 먹거리와 여성성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시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캐나다의 먹거리를 둘러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과 여성들의 먹거리 실천이 체현되는 일상적 양태를 주목하고, 약 250명가량의 먹거리 실천가들(먹거리 활동가들 또는 윤리적 소비에 관심이 있는 여성 주부들 등)을 면접조사한다. 이 연구를 통해 이들이 밝혀낸 주된 사실은 이들이 일상에서의 먹거리 실천에 여성들이 가담해온 것에 대한 페미니스트로서 자기 반성적 인식과 먹거리 실천에서 오는 기쁨 등의 체현된 감정 간의 혼동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적 인식은 앞으로의 먹거리 정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실천의 필요성, 정치화의 중요성 등의 발화로도 이어지는데, 이는 기존의 생태여성주의 담론에서의 논의를 뛰어넘은 것으로, 보다 개별화되고 일상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의 사회운동의 양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의 생태여성주의가 사회구조적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약하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 공적 사적 영역의 경계를 넘어, 여성의 일상생활 안에 내재해온 실천적 힘들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 힘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발화함으로써 기존의 대안적 정책 마련에서는 간과됐던 미시적 실천의 힘과 그 필요성을 옹호하고, 정책화 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점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오레곤 대학(Oregon University) 사회학과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환경운동의 양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환경운동을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감정과의 연관성, 친환경 실천에 있어서 정치적 자기효능감과 제도의 관계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다(Norgaard and York, 2005; Norgaard, 2007; Alkon and Norgaard, 2009; Norgaard, Reed and Bacon 2018).

질을 나가며, 먹거리와 젠더 연구의 계보는 다음의 세 지류의 흐름을 토대로 발전해왔음을 정리한다. 먼저 생태여성주의 담론의 확산과 국내 도입은 여성과 환경, 그리고 돌봄 노동과의 관계를 쟁점에 두게 하고, 다양한 실천적 정치적 흐름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먹거리 노동과 젠더를 그 흐름 위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가정 또는 지역에서의 여성들의 먹거리 생산, 가공, 소비에 관한 실천들의 과소 정치화 문제를 ‘먹거리 주권’ 개념을 토대로 비판할 수 있다. 여성들의 종자 선택, 계승, 농법, 요리법 등의 개발과 계승 등 생산과 가공 경험, 또한 먹거리 소비와 연결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경험들은 단연 먹거리 체계의 주요한 실천적 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먹거리 체계를 대안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경험은 그동안 과소 표집되거나 배제되고, ‘사적인’ 것으로 국한하여 과소정치화 되어왔다. 그러므로 먹거리 주권과 젠더를 결부 지어 사유하는 것은 의사결정 구조의 젠더에 따른 비배재성을 높이는 정책연구 등에 용이하다. 끝으로 최근 페미니즘 정치 생태학, 지리학, 지역학 등의 연구에서 주목하는 물질주의(materialism)에 대한 인간 너머의, 젠더 포용적 재해석은 기존의 생태여성주의가 직면했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여성/남성, 문화/자연, 공적/사적을 나누는 이분법적 인식론을 해체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 위에서 우리는 먹거리 노동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나아가 개인의 일상을 채우는 역동을 가진 물질적인 성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흐름과 먹거리

본 절에서는 이러한 여성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계보를 토대로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의 흐름을 살펴본다. 나아가 ‘마르쉐@’ 농부시장이 기획된 배경으로서 도시형 농부시장의 발생과 여성환경운동 흐름의 접점을 살펴본다.

가.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흐름

1980년대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 이후 심각해진 공해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보존주의, 생태여성주의 담론과 이를 기반으로 환경운동의 확산을 배경으로 한국의 여성환경 운동은 태동하였다(문순홍, 2001a; 2001b; 2002; 구도완, 2006; 신필식, 2007). 80~90년대 초기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은 (당시 보편적 의제가 아니던) 자연과 환경에 대한 급진적 사유를 할 수 있고, 가정 내 돌봄 노동에 전념할 수 있는 중산층, 고학력 주부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경향이 있었다(문순홍, 2001b; 2002; 이해진, 2012).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여성운동 진영의 변화에 따라, 여성환경운동의 중심 담론, 의제, 분위기 등 또한 다양한 양태로 분화된다. 여성 전반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줄어들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여성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Cairns and Johnston, 2015). 여성환경운동 진영은 그 외연을 넓혔지만 다른 편으로는 참여자들의 계급적, 문화적 수준이 다양해지면서 점차 결집의 형태가 느슨해져 왔다.

1990년대 한국에서의 여성환경운동은 ‘여성환경연대’ 혹은 여성민우회, 전국여성농민위원회와 환경운동 단체 내의 여성주의 소모임 등으로 시민사회 곳곳에서 결집 되어있었다. 이러한 시민사회 내외부에서 주부들은 점차 탈핵 운동, 미국 소고기 수입반대 운동 등을 경험하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각화된 의제로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먹거리 운동에의 경험과 가정 안팎에서의 먹거리 실천 경험, 여성환경운동의 양상이 넓고 느슨해져 가는 상황에서 생활협동조합이나 먹거리 소비를 통한 친환경적 실천은 점차 여성환경운동의 중심 축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나. 생활협동조합과 여성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은 1990년대 초 이후 주부들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한 번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으며, 또한 2008년을 기점으로 제기된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먹거리 위협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한 번 더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은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등을 통한 시민사회 내부의 인적 네트워크의 성장과 ‘생태여성주의’, ‘먹거리 주권’, ‘먹거리 안전’ 등의 담론의 확산을 배경으로 성장해왔다. 아래 표 III-1은 이러한 확산과정에서 점차 공고화된 대표적인 한국의 대안먹거리네트워크의 발생 양상과 그 우산조직을 나타낸다.

표 III-1. 한국의 대안먹거리네트워크의 양상 우산조직과 판매 형식

우산조직	대안먹거리네트워크	발생(판매) 양태
한살림	한살림 협동조합	매장형/온라인
여성민우회	행복중심 생협	매장형/온라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우리농	매장형
여성환경연대	농부시장 마르쉐@	시장형
iCOOP생협연대	icoop 생협	매장형/온라인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인드라마 생협	매장형/시장형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협	매장형
전국여성농민협의회	언니네텃밭 꾸러미	CSA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 생활협동조합의 확산과 그 양상의 발전에는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협의회, 여성민우회 등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 기여해왔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문순홍(2001a; 2002)과 이해진(2012)에 따르면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먹거리를 구매하고, 나아가 건강한 먹거리나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온 여성들의 먹거리 실천은 생활협동조합의 형성에 깊이 관여해 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점차 단순 먹거리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상호 고무되며, 조직화의 주체로 나서거나, 직접 먹거리를 생산하는 등의 다양한 행위성을 발전시켜왔다.

먹거리 실천의 행위성이 다각화됨에 따라 실천의 흐름들이 조직화되는 양태도 다양해진다. 생활협동조합은 그 규모가 커지고 제도화되며 점차 매장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의 안정성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규모의 증가나 제도화는 장점이 분명하지만, 반대로 기존에 생활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역동들을 상쇄하는 결과로 자리 잡기도 한다. 특히 제도화 이후 먹거리 생산과정에서 농부들과 건강한 먹거리 판매를 위한 활동가 등의 다양한 노동이 비가시화된다는 점은 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와 가장 배치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먹거리 노동 중 여성들의 노동은 더욱 비가시화 되기도 하였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농업인보다 낮게 인식하는 비율이 81.1%에 달한다는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 농업인 가정 내의 가부장적 질서로 인해 여성의 농업인으로서 공적 발언의 기회, 정치적 자기효능감을 얻을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국여성농민협의회는 이러한 여성 농업인들의 실태를 드러내고, 그들의 행위력을 결집하고, 그 노동을 가시화하는 다양한 작업을 이행한다. ‘언니네 텃밭’이라고 불리는 공동체지원농업(CSA)방식의 꾸러미 사업은 도시의 여성들과 농촌의 여성들 간의 연대를 기반으로 확장되어 여성 농업인들의 행위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정은정·허남혁·김홍주, 2011). 그뿐만 아니라 농부시장 ‘마르쉐@’의 경우 생활협동조합로의 조직화, 제도화를 기대하지 않고 시작한 대신 다양한 여성 먹거리 실천가들의 협업의 장을 여는 ‘시장’을 서울시 곳곳에 만드는 시도를 감행해왔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생활협동조합이 제도화 과정에서 잃어왔던 활력을 되살리는 데에 기여한다. 농부시장 ‘마르쉐@’이 2012년 기획되어 1년 남짓 동안 사회문화적으로 정착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대안먹거리네트워크로서 도시형 농부시장의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 된다.

이후 서울시, 은평구 등의 지자체에서도 도시형 농부시장을 확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도시형 농부시장을 만들면서 농부시장은 점차 늘어나게 된다. 또한 기존의 생활협동조합들도 ‘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일례로 인드라망 생협외의 경우 기존에는 매장형 판매를 해 왔지만, 2012년부터는 다양한 실천들을 엮어내기 위한 장으로서 ‘화요장터’를 열고 시장을 통해

대안적인 먹거리 실천의 역동을 전달하고 있다. 아래 인드라망 생협 이정호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농부시장이 가진 대안먹거리네트워크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서술한다.

"그동안 인드라망이 귀농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지만, 지금은 생명평화다. 이 가치를 가지고 귀농과 공동체, 협동조합 등을 엮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안하는 과정이다. 생협도 지난 몇 년간 별도로 '화요장터'를 열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불교귀농학교 출신 귀농자들의 생산물을 이 장터에서 판매한다. 지금 대부분 생협은 물류센터를 통해 생산물을 공급하는데, 초기 생협의 역동성인 귀농자인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일이 드물게 되었다. 그래서 장터를 만들었다. 지금은 아주 북적하다.(웃음)" (출처: 불광신문 2017.05.30.일자)

여성환경운동과 먹거리 실천의 양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대안먹거리네트워크의 양태 또한 다각화되어왔다. 다음 절에서는 여성환경운동의 계보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조직의 운영이 가장 연속적인 농부시장 '마르쉐@'을 젠더 관점에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다. 도시형 농부시장의 발생과 여성

사례 도시형 농부시장의 발생은 위와 같은 여성환경운동 양태의 변화와 대안 먹거리 운동의 흐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마르쉐@' 농부시장은 2012년 10월 시작되어 초기부터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며, 시민사회 전반뿐 아니라 기업, 나아가 다양한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마르쉐@' 농부시장은 기존에 농촌 지역을 거점으로 열려왔던 농민시장, 직거래 장터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마르쉐@' 농부시장의 성격을 도시형 농부시장으로 정의하고, 그 특이성을 설명한다.

농부시장의 발생에는 국가별로 각기 다른 배경이 있다. 이러한 농부시장의 발생과 발전, 정착은 각 국가의 도시 발달의 양태에 따라 분화되어왔다. 그러므로 농부시장의 개념적 규정 또한 국가와 시대별로 다르다.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서유럽의 경우 소규모 도시마다 지역의 재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농부시장들이 실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마르쉐친구들, 2019), 미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미 농무부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⁶⁾에 따라 농민과 생산자가 특정한 장소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정기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공간으로 규정되며 증가추세에 있다(USDA, 2015c; 김원동, 2016, 2017: 52에서 재인용). 일본 또한 1970년대 발생 후 90년대 이후 쇠퇴 중이던 지산지소운동(지역생산 지역소비를 장려하는 운동)을 재촉진하고자 하는 계기로 2000년대 들어 「농협(JA) 파머스마켓 헌장」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농부시장의 유치를 촉구하였다(윤병선·김철규·송원규 2013). 이러한 각국의 농부시장의 발전과 확장은 도시화 이후의 도시 내 안전한 먹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적 필요성과 더불어 도시 거주자들과 농부들의 거래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실천들이 조우한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농부시장의 발생은 보다 최근이다. 허남혁(2018)에 따르면 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시절 미·일 사례를 따른 직거래활성화정책을 추진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외 사례와 같은 농부시장의 형태는 사회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아파트 순회형 요일장터로 변형되어 이어져 왔다⁷⁾. 2000년대 중반에 들어 로컬푸드운동이 확산되면서 다시금 농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요구는 농협이 주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유럽, 미국, 일본의 농부시장의 모델과는 그 공간의 형태나 성격에 여러 차이가 있다. 농부시장은 주로 도시 내 공원이나, 임시공간 등에서 창발적, 주기적, 순환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성격의 농부시장은 한국에서는 2012년 이후에 들어서야 발생·정착한다. 2012년 6월 - 10월 ‘서울시 농부의 시장’이 시범적으로 개최되었고, 그해 10월 ‘마르쉐@’가 기획되었다. 특히 2012년 10월 처음 개장한 ‘마르쉐@혜화’는 기존의 생협의 주된 소비자층을 기반으로 강력한 호응을 받아 농부시장을 사회·문화적으로 정착시키는 기점이 되었다. 이 두 시장은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며 점차 각기 고유한 형태로 발전되어왔다.

6)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농부시장의 급속한 양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1994년 1,755개로 집계되었던 등록된 미국의 농민시장은 2019년에는 8,140개로 약 4.6배 증가하였다(김원동, 2010; USDA, National Farmers Market Managers Survey).

7) 그럼에도 농산물의 직접거래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이는 농협의 주도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정착되기도 하였다.

한편 ‘마르쉐@’ 농부시장과 서울시 농부의 시장이 시작된 지 3년 후, 2015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도시형 농부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시장’은 예술시장, 재사용장터, 농부시장, 마을시장으로 나뉘고, 농부시장은 “농부가 직접 자기 생산물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장”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조례의 제정은 대안먹거리네트워크로서 도시형 농부시장을 제도 안으로 들이는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사실상 다양한 도시형 농부시장의 양태를 모두 포괄적으로 보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않았다⁸⁾. 아래 표 IV-1은 서울시에 시민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중 농산품을 취급하는 시장의 장소, 품목, 운영주체이다.

표 IV-1. 서울시 등록 시민시장 중 농산품을 취급하는 시장목록

시장명	장소	운영주체 및 주관	대상품목
서울시 농부의 시장	광화문광장/만리동공원/ 덕수궁돌담길/농동어린이대공원/(남산한옥마을)	서울시지역상생경제과 (주) 째지농부 (주) 우리에스엔피	농수특산물
농부시장 마르쉐	(이동형)	(사) 농부시장 마르쉐	농수 특산물 및 음식기반의 가공품
마들장	등나무근린공원 (북서울 미술관옆)	노원도시농협협의회 (사) 지구의친구들 노원에코센터 (노원구)	농산품, 먹거리, 수공예품 등
양천골목 장터	양천구 목동동로 10길 16-23	양천골목장터추진단 (인드라망), 생협, 마을카페, 그물코, 양천 사회적경제센터 등	농산품, 먹거리, 수공예품 등
얼굴있는 농부시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재)서울디자인재단 DDP, (사)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	농수 특산물
꽃피는 장날	롯데몰 은평점 광장	은평구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우리동네 텃밭 협동조합	농산품, 먹거리, 수공예

8) 표 IV-1에서 알 수 있듯, 생활협동조합에서 발전된 형태의 농부시장이나 종교단체의 주관으로 열리는 농부시장, 또는 소규모로 마을 곳곳에서 비공식적으로 열리는 농부시장 등은 ‘시민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현재 시민시장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지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도시형 농부시장의 주체와 주관, 공간이용의 양태는 제각기 다르며 다양한 양태로 진화되어왔다. 또한, 각 농부시장의 조직문화, 조직화 양태, 판매 품목과 공간이용 양태 등의 차이는 농부시장이 활성화되는 정도에 차이를 만들어낸다. 본 연구가 사례로 주목하는 ‘마르쉐@’ 농부시장은 목록의 여타 농부시장들과는 다른 두 가지 독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시장을 여는 공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도심의 임시공간에서 열린다.

둘째, 시장의 주관 또는 협력 기관으로 지자체 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독특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시장을 열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물질적 제도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100여 팀에 달하는 출점팀원들이 장을 열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서울 시내에서 빌리는 것은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이 상당하다, 또한 기존의 용도와는 다르게 ‘시장’으로 공간을 전용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 두 독특성은 ‘마르쉐@’ 농부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데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면 조직 내부의 오랜 협의를 거쳐 지켜져 오는 수칙이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이러한 독특성이 ‘마르쉐@’ 농부시장의 성공요인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소속기관을 주관으로 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마르쉐@’ 농부시장의 비공식적 성격은, 그 자주적인 성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이는 먹거리 안전의 확충을 바탕으로 시장을 관리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지자체와는 다르게 먹거리 주권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마르쉐’ 농부시장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결집하여왔던 농민운동과 환경운동, 먹거리 운동들을 도시 생활권자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 없는 자연으로서 농작물들을 공원, 공터, 도시 숲 등의 한 가운데로 불러들였다. 이러한 농부시장의 특징은 도심에서의 농부시장의 가능성은 열어낸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도시 거주자들에게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라는 일련의 과정은 논과 밭을 일상에서 마주하며 살아온 농어촌, 산촌 지역민들에게 보다 더욱 낯설었으며 동시에 문제적인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마르쉐@’ 농부시장의 경우 이러한 면에서 도시 생활에서의

일상성에 어떤 강렬함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공간이 될 수 있었다.

절을 닫으며, 위와 같은 ‘마르쉐@’ 사례 농부시장의 특이성에 주목하며 ‘도시형 농부시장’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시형 농부시장’은 보다 친숙한 유형으로서 오일장 등을 포함하는 농촌과 농촌 근교 소도시에서 열리는 농부(민)시장과는 달리, 대도시 한 가운데에서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시장이다. 대도시에서 농부시장을 연다는 것은 시장을 열 수 있는 넓은 공간의 확보,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제반 시설의 문제를 시장화된 공간 이용 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된다. 또한 농촌지역이나 농촌 근교지역에서보다 이용가능한 녹지를 찾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갖는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높은 인구밀도의 집적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 작품, 공간 디자인 등을 혼합하여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농부시장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인구밀도의 집적은 다양한 먹거리 의제에 관심이 있는 행위자들과 실천들을 시장에 불러 모으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나아가 도시의 콘크리트 도로, 고층 건물 등의 경관위에 생경한 ‘농작물’들을 불러들인다는 면에서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갖고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기도 한다. 도시형 농부시장은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먹거리 실천의 대안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9) ‘도시형 농부시장’이란, 본 연구가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조어이지만, 통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특히 이는 초기 ‘마르쉐’ 농부시장의 운영진들과 참여자들에 의해 이미 감각된 것이기도 하다. ‘마르쉐’ 농부시장은 초창기 기획에서부터 농부시장을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이라고 지칭해왔다. 이는 ‘마르쉐’ 농부시장이 가진 독특한 활력과 공간 이용 양태의 특수성이 ‘도시’ 공간의 특수성으로 보편적으로 감각 가능함을 의미한다.

IV. 사례연구: 여성주도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¹⁰⁾

1. 도시 먹거리 문제의 심화와 ‘마르쉐@’ 농부시장의 발달

본 절에서는 ‘마르쉐@’ 도시형 농부시장의 발생과 기획 운영의 흐름이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흐름과는 어떻게 조우하는지를 사회·문화적, 제도적 배경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사례의 특이성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분석한다. ‘마르쉐@’ 농부시장은, 2012년 도시형 농부시장이 아직 국내에 사회문화적으로 정착하지 않았던 시기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참여자들을 불러모았다. 이러한 실천에의 결집이 가능했던 것은 ‘마르쉐@’ 농부시장이 기존의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계보 위에서, 다양한 실천 전략과 먹거리 체계의 대안성에 대한 비전 등을 풍부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쉐@’ 농부시장이 그간의 축적된 여성환경운동의 역량을 토대로 제시한 먹거리 네트워크의 대안적 비전은 제도적인 언어로 서술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마르쉐’ 농부시장의 전신인 문래동 일대 옥상 텃밭이 처음 기획되던 2011년은 도시의 먹거리 안전문제가 다양한 방향에서 대두되던 시기였다. 먹거리 안전(food security)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2010년 구제역 파동과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을 계기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 증가하는 때였다. 특히, 2010년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여부에 대해 전 시민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이 논쟁의 결과로 당시 서울시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며, 보궐선거를 통한 서울시장의 교체를 일으키기도 하였다(임성은 2013: 204). 이처럼 먹거리 문제를 둘러싼 사건들¹¹⁾은 먹거리 문제에 대한 세계적/지역적 정치적 의사결정의 필요가 대두되어왔음을 설명한다(마르쉐 보고서

10) 본 절은 저자의 석사논문(“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 존재의 지도: 정동적 관점으로 대안먹거리네트워크 사유하기”)의 일부를 젠더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11) 2017 마르쉐 지속가능보고서는 이 밖에도 ‘마르쉐’ 농부시장이 발생한 사회적 배경으로 다음을 함께 거론한다: “리우환경회의”, “기후변화”, “오일피크 의제화”, “광우병 사태”, “세계화와 먹거리 위험에 대한 관심 증폭”, “종자 다양성 운동기구 토종씨드림 출범”, “리먼브라더스 사태”, “세계 금융위기”, “도시농업”, “기본소득 등 전 세계적인 대안 모색”, “일본에서 정부 주도로 생산자가 직접 나오는 시장”, “‘마르쉐 재팬’프로젝트 시작”, “산업화가 된 먹거리 문제에 대한 관심 증폭”

2017). 위와 같은 배경에서 집권한 제 35·36·37대 박원순 서울시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먹거리 정책을 정비하기 시작한다. 다음은 먹거리 정책의 방향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마르쉐 보고서 2017를 토대로 재구성).

- 2012년 도시농업 원년 선포 및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 2016년 밀라노 도시 먹거리정책 협약 참여
- 2016년 서울시민시장협의회 창립
- 2017년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발표(6월) 및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9월)¹²⁾

위의 네 가지 정책적 정비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다. 첫째, 서울시가 도시의 먹거리 안전의 확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등 증가하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둘째, 이에 발맞춰 먹거리 생산과 소비 양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셋째,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연결지어 정책으로 종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한다. 이러한 연속적인 정책들은 사실상 서울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던 시민사회의 먹거리 실천 양태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특이성에 기반해 ‘마르쉐@’ 농부시장은 이러한 정책의 흐름과 궤를 함께하며, 정책변화를 선두적으로 제안하고 야기하는 역할을 해왔다.

‘마르쉐@’ 농부시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증가한 먹거리 불안과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파동을 계기로 보다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3인의 시민을 주력으로 시작되었다. 이 3명의 시민들은 각각 생협운동, 요식업 및 저널리즘, 예술인 운동진영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이미 한국과 일본에서 1980년대 이후 자리를 잡아 왔던 생활협동조합이나, 여성환경운동을 비롯한 대안 먹거리 계획에 대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조직화 역량-대표적으로 생협 활동가 및 귀농한 소규모 농부와의 네트워크, 농법 및 종자, 요리법에 대한 지식, 숙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친숙도 등-을 갖춘 상태였다. 이는 ‘마르쉐’ 농부시장이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에 대한 보다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12) 2017년 선언된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의 내용에는 2012년 도시농업원년선포와 관련된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안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먹거리 정책 제안이 포함된다.

축적된 지식과 특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였다.

숙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친숙하다는 점은 농부시장의 기획 및 운영에 디자이너, 예술가, 농부들, 요리사, 여성운동이나 환경운동에 참여해왔던 활동가들을 활발히 참여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나아가 이러한 민주적 조직화 방식은 도시의 열린 공간을 점유 또는 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민들과 기업인들과의 협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반면 먹거리 농부시장을 둘러싼 실천과 행위자들의 다양성은 ‘마르쉐@’ 농부시장의 특이성과 필요성 등을 제도적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마르쉐@’ 농부시장은 시장의 지속성을 위해 시장의 운영체를 법인화하는 등의 제도화를 시도해왔다. 서울시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시민시장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서울 시민시장 협의회’를 창립하는 등 다양한 협업의 장을 열고자 하지만, ‘마르쉐@’ 농부시장은 여전히 시장을 안정적으로 개최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서울시 곳곳을 전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시민주도 주최에서의 어려움은 서울시와 시민들의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에 대한 비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2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 서울시의 경우 농부시장을 포함한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를 향한 일련의 시도의 목적을 ‘먹거리 안전’의 확충으로 보고 있지만, ‘마르쉐@’ 농부시장에의 운영진들은 안전한 먹거리의 소비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부 및 농촌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즉 ‘먹거리 주권’의 확충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르쉐@’ 농부시장은 서울시정이 제안하는 먹거리 마스터플랜 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그간의 여성환경운동, 대안 먹거리 운동의 계보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먹거리 체계의 대안성을 만들어가는 ‘마르쉐@’ 농부시장 공간의 특이성과 그 운영의 세세한 과정을 살펴보고, 대안먹거리네트워크로서의 특이성과 농부시장 운영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사례연구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2. 사례연구의 설계

‘마르쉐@’ 농부시장은 시장을 운영 기획하는 데에 협력해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그 실천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어있다. 이러한 조직의 실천적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방법론의 차원에서 사례연구와 가깝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례의 독특성(Yin, 2009; 2012)에 기반을 둔 단일 사례연구를 진행하며 그 젠더적 특이성을 풍부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 인터뷰를 포함한 연구의 현장에서 실천들을 문화/자연, 도시/농촌, 여성/남성, 주체/객체 등으로 성급하고 이분적으로 구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연구의 설계에 있어,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마르쉐@’ 농부시장의 운영진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혹은 ‘농부시장’을 만들어 낸 ‘주체’로 호명하게 될 것을 경계하였다. 이는 ‘마르쉐@’ 운영진들은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운영진’이나 ‘기획인’ 심지어는 ‘활동가’라는 말로 스스로를 호명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을 뿐 아니라, 연구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활동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일관된 대답을 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다¹³⁾. 그뿐만 아니라 운영진들은 ‘마르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과 농부, 요리사, 수공예가 등 출점팀원들뿐 아니라 (단골) 손님들 등 제각각 구성원들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꾸준히 강조하였다. 연구는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담기 위해 기존의 수직적 조직운영 질서와는 배치되는 실천의 수평적이고 관계적인 배열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행위자 집단이 아닌 실천이 배열되는 시간과 공간으로 설정한다.

ㄱ. ‘마르쉐’ 농부시장 공간

ㄴ. ‘마르쉐’ 농부시장의 기획, 형성과 변화 과정

이러한 연구대상을 탐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문헌연구, 현장답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2016~2017년간 환경운동가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마르쉐’의 운영진으로 일하던 2인의 가까운 지인이 있었고, 이는 연구자가 연구를

13) 이들은 “마르쉐 친구들”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7명이 팀이 되어 상근 또는 반상근의 형태로 농부시장을 운영해왔다. 이하 연구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마르쉐 친구들”이라는 공식 명칭 대신 ‘운영진’이라는 지칭으로 통일한다.

시작하며 예비 면접조사를 통한 정보 탐색과 연구참여자들과의 신뢰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개인적인 관심으로 여성환경운동에의 다양한 실천들에 참여하며 한국 여성환경운동 특유의 조직화 방식, 대화 방식, 문화적 성격 등에도 익숙한 상황이었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2019년 봄부터 마르쉐 운영진들의 허가를 받아 부정기적으로 농부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고, 운영진을 대상으로 예비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는 ‘마르쉐@’ 웹사이트, 여성환경연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보고서들을 토대로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이후 2019년 12월 본격적으로 면접조사를 시작하여 2020년 10월까지 약 10개월간 면접조사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기간 연구자는 대체로 개최되는 모든 농부시장에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했으며, 현장조사 기간에는 시장의 운영진들이 모집하는 봉사팀에 자원하여 봉사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장조사 동안 공간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 표정, 대화 내용이 연구의 중심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을 알고, 수기를 통해 현장기록을 활발히 작성하고, 사진 자료를 수합하였다. 동영상 촬영이나 동의 없는 녹음은 일절 하지 않았으며, 사진 촬영 시 시장 방문자들의 얼굴이 사전동의 없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다음의 표는 현장답사 일시 및 장소와, 문헌연구 자료의 특징을 설명한다.

표 IV-1. 현장답사 일시 및 장소

연번	일시	장소	명칭
1	‘19.05.12.	동승동, 마로니에공원	농부시장@혜화 <지구>
2	‘19.06.09	동승동, 마로니에공원	농부시장@혜화 <여름채소>
3	‘19.07.14	동승동, 마로니에공원	농부시장@혜화 <햇밀>
4	‘19.09.08.	동승동, 마로니에공원	농부시장@혜화 <열매>
5	‘19.10.13.	동승동, 마로니에공원	농부시장@혜화 <뿌리>
6	‘19.11.10.	동승동, 마로니에공원	농부시장@혜화 <토종>
- 이후 COVID19확산으로 축소 개최 -			
7	‘20.04.20.	서교동, 수카라	채소시장@수카라
8	‘20.05.10.	동승동, 마로니에공원	농부시장@혜화
9	‘20.05.16.	성수동, 성수연방	채소시장@성수
10	’20.05.26.	합정동, 무대륙	채소시장@성수
11	‘20.06.14.	동승동, 마로니에공원	농부시장@혜화
12	‘20.06.20.	성수동, 성수연방	채소시장@성수

13	'20.06.23.	합정동, 무대륙	채소시장@합정
14	'20.07.04.	신사동, 쿠킹라이브러리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 × 마르쉐
15	'20.08.09.	성수동, 에스팩토리	농부시장@성수 <햇밀장> + <햇밀 토크쇼 ¹⁴⁾ >
16	'20.09.13.	동승동, 마로니에공원	농부시장@혜화 (사전주문 후 수령 방식)
17	'20.10.11	용산	농부시장@용산
18	'20.10.17.	성수	채소시장@성수

표 IV-2. 문헌연구 자료의 특징

자료 목록	자료의 특징
'마르쉐' 발간 보고서 www.marheat.net	총 12건의 보고서는 연간 회계장부를 포함하며, 시장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사진자료와 기표들을 담고 있음
'마르쉐' 공식 홈페이지 www.marheat.net	홈페이지에서는 현 출점팀원들에 대한 지역, 출점 계기, 판매 물품 등의 일반 자료와 소개글, 출점팀원들 인터뷰집 등을 수합함
'마르쉐' 페이스북 www.facebook/marheat	초창기 '마르쉐'의 기획의도와 홍보 포스터 등의 사진자료를 수합함
'마르쉐' 인스타그램 www.instagram/marheat	2017년 이후 '마르쉐' 홍보자료와 마르쉐가 열린 공간들에 대한 기록을 수합하고, 간략한 시장별 후기를 참고하여 심층면접의 구조화를 위한 자료로 씀

심층면접조사는 총 26명과 이뤄졌으며 2건의 인터뷰는 시장이 열리는 동안 시장의 한쪽에서 진행되었으나, 나머지는 모두 시장에서 면접조사를 의뢰한 후 약속을 잡아 연구참여자가 제안하는 공간-카페, 음식점이나, 거리 등 열린 공간, 농부들의 논과 밭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면접 시간은 평균적으로 2시간 30분간 진행되었으며, 최소 30분부터 최대 7시간까지도 이어지기도 하였다. 면접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질문지를 읽은 후 원하는 순서로 자유롭게 대답해 달라고 미리 요청하였다. 주된 질문은 '마르쉐' 농부시장에 참여한 계기와 감흥, 마르쉐에서의 경험에의 여성으로서의 특이점, 자연과의 유대감, '마르쉐' 농부시장에 바라는 점, 참여에의 어려움, '마르쉐' 시장에서의 기억나는 사건 및 대화, '마르쉐' 농부시장 참여를 전후로 변화된 일상에 대한 것이었다.

14) 우리 밀 농가와 우리밀을 제분해주는 제분소 및 정미소, 우리 밀로 다양한 빵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는 베이커리들이 시장이 끝난 오후 모여 '우리밀 농사'와 '우리밀 살리기'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밀 빵을 시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크게 세 축으로 구분된다. 한 축은 ‘농부시장 마르쉐’의 전·현직 운영진들이다. 두 번째 축은 마르쉐에 소비자로서 관여하다가 더욱더 긴밀하게 관여하고자 농사를 직접 짓거나, 자원봉사를 자원한 두 명의 자원봉사자이다. 세 번째 축은 ‘마르쉐’ 농부시장에 출점하는 출점팀의 팀원 18명으로 16명은 전업 혹은 반업 농부¹⁵⁾이며, 2명은 각각 요리사와 수공예가이다. 농부시장 마르쉐는 요리사, 수공예가, 그리고 농부들이 함께 만드는 시장(마르쉐친구들, 2019: 13)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출점 농부들이 중심이 되는 시장이므로,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농부팀원들을 중심으로 모집하게 되었다.

총 28명의 연구참여자들은 위와 같이 크게 세 축으로 나뉘지만, 그 실천의 양태는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으로 넘나들어 진다. 이를테면 마르쉐에 출점하는 요리사 중에는 농부들과 만남을 계기로 농사를 직접 짓기 시작하기도 한다. 수공예가들은 농사짓기에 편한 작업복은 무엇인가를 고심하며 농부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이들의 관계 또한 마주침에 따라 발생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단선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연구참여자 중 두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특이성을 보다 명증히 드러낸다. 이 둘의 경우 처음에는 소비자로, 농부시장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나, 후에는 농부팀의 일원으로 작은 텃밭을 가꾸고, 판매 도우미로 나오거나, 여타 다른 일들에 관여하며 자원봉사자로서 일하기도 한다. 이들은 마르쉐 농부시장과 그 결합의 방식을 지속해서 변화시키며 농부시장의 구성과 조직을 함께 만들어 왔다.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와 특이성은 아래의 표 IV-3, 4, 5, 6과 같다.

15) 이보은, 김송희, 김미현(2017)에 따르면 ‘마르쉐’ 시장에 출점하는 농부들의 경우 전업농부들의 수와 반업 농부들의 수가 1:1의 비율을 띄고 있다. 연구자는 면접조사를 통해 소규모 다품종 농업인들이 전업농부로 남을 경우 생계를 위한 별이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르쉐’ 출점농부들이 전업농부가 많지 않은 이유는 “비료 없이”, “제초제 없이” “느리게” “자연스럽게” 작물을 키우기를 바라는 농부들은 주로 유기농법이나 풀을 메지않고, 작물들을 섞어 키우는 방식의 농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속도와 양의 작물들을 기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작법은 자연과 땅, 몸에는 좋은 먹거리를 만들게 하지만, 쉬이 판로를 구축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부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기를 포기하고 다른 노동을 병행하여 생계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농이 적합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는데, 농업만으로도 이미 노동의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에 대한 몸에 대한 먹거리 생산과정에서의 돌봄은 그림자 노동이므로 적합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되어왔다.

표 IV-3.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연구참여자 분류	연구참여자 수	성비(여 : 남) ¹⁶⁾
A. 운영진	7	7 : 0
B-1. 농부	14	7 : 7
B-2. 요리사/수공예가	3	5 : 0
C. 봉사자	3	2 : 1
Total	28	

표 IV-4.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A. 운영진

분류	성별	연령대	특이점
운영진 1	여성	50	초기 기획자, 현 마르쉐 친구들
운영진 2	여성	30	현 마르쉐 친구들
운영진 3	여성	20	전 마르쉐 친구들 ('15-'18)
운영진 4	여성	20	현 마르쉐 친구들
운영진 5	여성	40	현 마르쉐 친구들
운영진 6	여성	30	현 마르쉐 친구들

표 IV-5.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B. 출품팀원

분류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	특이점
농부 1	남성	50	경기 광명	채소 가격을 되찾아왔어요
농부 2	여성	60	경기 양평	이 좋은 농사 일찍 시작할 걸 그랬죠
농부 3	여성	50	경기 양평	아이들을 데리고 텃밭 교육을 했어요
농부 4	남성	40	충남 홍성	아이들과 호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농부 5	남성	30	경기 파주	다른 시장들과 '마르쉐'는 달라요
농부 6	남성	30	경기 파주	농부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요
농부 7	여성	30	경기 양평	자급자족 삶을 살고자 귀촌 했어요
농부 8	여성	40	충남 홍성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16) 인터뷰는 운영진의 경우 업무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현 운영진 전원과 전 운영진들을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모집하였다. 2019년 모집 당시 '마르쉐' 운영진들은 전원이 여성이었다. 이에 대해 운영진들은 특별한 선호를 갖지 않았으나 시장의 성격상 여성이 주로 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구술하였다(운영진 1, 2, 3, 6). B군에 속하는 출점팀원들의 경우 연구자는 시장에서 무작위로 면접자를 모집하였고, 성별에 따른 선호를 갖지 않았다. 과거 마르쉐 농부시장의 출점팀원들의 성비는 여성이 월등히 높았으나 최근 시장이 널리 알려지면서 부터는 점차 출점팀원의 성비가 동일해지고 있다. 출점 팀들은 가족농이 많은데 가족농의 경우 함께 출점하거나 판매를 여성이 전담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부가 아닌 남성농부가 면접에 응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C군에 속하는 봉사자의 경우에도 2년 이상 봉사를 이어온 참여자들을 성별에 관계없이 연구자가 시장에서 직접 모집하였다.

농부 9	남성	30	서울 노원	부모님 일을 이어 제 디자인 기술을 더해요
농부 10	남성	50	경기 광명	서울 사람들을 대하는 건 어렵지만 활력 돼
농부 11	남성	40	경기 광명	기후변화 때문에 다품종 재배 해야해요
농부 12	남성	30	경기 양평	노원에서 도시텃밭 동아리를 했어요
농부 13	여성	20	전북 익산	20대 페미니스트 농부로 산다는 건 말이죠
농부 14	여성	40	경기 양평	이제는 토양과 미생물에 대해 공부해요
수공예가 1	여성	50	강원 평창	환경단체에서 평생 자원봉사를 해왔어요
요리사 1	여성	50	서울 강동	천연효모 빵 위해 녹음 우거진 이곳에 왔죠
요리사 2	여성	40	서울 마포	좋은 채소가 있어야 좋은 요리가 있어요

표 IV-6.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C. 기타 운영·참여자

분류	성별	연령대	참여 형태	특이점
사진가 1	남성	30	유급	첫 시장부터 9년간 시장을 기록했어요
봉사자 1	여성	40	무급	'마르쉐' 따라 동네 시장을 만들었어요
봉사자 2	여성	30	무급	소비자에서 판매 도우미가 되었어요

3.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마르쉐@’ 농부시장 읽기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기획의 배경과 여성환경운동의 계보 위에서 발생한 ‘마르쉐@’ 농부시장의 운영 양태를 여타 농부시장과의 차이를 기반으로, 여성들이 주도하는 농부시장의 특징을 탐색한다. 앞서 서술하였듯 ‘마르쉐@’ 농부시장은 다른 도시형 농부시장들과는 다른 다음의 세 가지 특이성을 갖는다. 첫째, 여성환경운동의 계보 위에서 여성들을 주요한 행위주체로 고려한다. 둘째, 초창기 농부시장에 참여한 소농, 귀농귀촌인들은 주로 여성이었으며 마르쉐를 운영해온 운영팀원들은 전원이 여성이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이나 ‘어머니’등을 적극적으로 호명하는 등 ‘마르쉐@’농부시장의 젠더적 성격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외연을 넓히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남성 농부들, 자원봉사자들, 요리사들, 수공예가들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늘어, 현재 그 구성성비가 거의 동일해졌다.¹⁷⁾

기획의 차원에서 ‘여성’을 호명하거나 ‘페미니즘’을 표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마르쉐’ 농부시장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이러한 조직화 방식과 운영 양태를 하나의 먹거리 정치로서 공식화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마르쉐@’ 농부시장의 ‘사적(private)’인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적’인 성격이란 사스럽거나 비정치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전통적으로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여겨져왔음을 설명하고자 쓰이는 표현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2012년 ‘마르쉐@’ 농부시장이 처음 기획되던 당시까지만 해도 쓰레기 분리수거, 안전한 먹거리 구입과 조리를 포함하는 대안적인 먹거리 실천은 가정 내에서 주로 여성 주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이었다(문순홍 2001b). 당시 친환경 식품은 ‘고가’의 사치재로 인식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인식 위에서 초창기 ‘마르쉐@’ 농부시장은 “된장녀들”의 공간으로 거론되며 그 먹거리 정치로서의 대안성은 과소평가 되기도 하였다(운영진 5).

이러한 인식은 ‘마르쉐@’ 농부시장을 둘러싼 실천들의 공익적 가치, 또는 먹거리 정치로서의 공적인 성격을 과소화하여 재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이는 그동안 ‘사적’으로 취급되어왔던 주제의 대화들과 그 대화에 친숙한 행위자들을

17) 이보은, 김송희, 김미현 (2017)에 따르면 출점 농부팀원 기준으로 53.7%가 여성농업인이다.

시장 내부로 불러들였다. 이는 초기에는 대체로 여성이었으나, 반드시 여성들만이 사적인 대화에 친숙한 것은 아니었기에, 시장은 점차 다양한 행위자들의 집합체가 되고, 그 행위자들 간의 ‘사적’일 수 있는 대화들-이를테면 음식에 관한 대화, 음식과 몸의 관계에 관한 대화, 다양한 몸들과 체현된 경험에 관한 대화-을 불러들이며 먹거리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가는 데에 이바지했다.

가. 돌봄-공간 되어가기

‘사적’ 공간으로 여겨지던 친밀함의 공동체인 가정, 또는 지역 공동체에서 나누어지던 대화들이 농부시장 내부로 불러들여지면서, 농부시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친밀한 공동체의 성격을 띠게 된다. ‘마르쉐@’ 농부시장은 회당 1만 명 이상의 손님을 끌어모으고, 적게는 40여 팀의 출점팀에서 많게는 100여 팀 이상의 출점팀과 함께 열린다.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는 열린 공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르쉐@’ 농부시장이 내부적 친밀성을 갖는 공동체로 기능하는 것은 ‘마르쉐@’ 농부시장의 주요한 특징이면서, 젠더화 된 수행으로서 돌봄 노동이 모인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마르쉐@’ 농부시장에는 기존의 농민시장들에서는 찾기 어려운 ‘수유 천막’, ‘설거지대’, ‘놀이터’ 그리고 ‘나무 그늘’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마르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꾸준히 논의, 합의되어온 시장 공간 선택의 조건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대화를 방해하는 것은 전부 없애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자, “우리가 전부 엄마는 아니었지만, 여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다(운영진 1).

처음 시장은 공사 중인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의 한 귀퉁이에서 열렸다. 이 시장에는 당시 확산되고 있던 다양한 옥상텃밭, 도시텃밭 농부들과 활동가들이 가진 여성환경운동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귀촌농부들,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여성이었는데, 이는 여성들만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성 역할 분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소하고’ ‘사적인’일이며 동시에 많은

대화를 요구하는 시장에 나가는 일들은 여성들이 주로 하게 된 것이었다. 이를테면 귀촌한 여성농부들이 “오랜만에 친구도 볼 겸, 어차피 텃밭에 남는 작물도 많아” 아이를 데리고 가벼운 걸음으로 시장에 나온 것이 그 시작이 되었다. 반면에 귀촌 남성들은 굵직한 판로를 개척하거나 공동체 조직을 위해 조합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의 구술은 초기 남성 농업인들이 ‘시장에서의 판매’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이 거리가 먼 것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여성들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섰다. 농부들과의 면접조사에서 시장 참여 계기에 대한 질문에 여성 농부들은 주로 “평소에 먹거리와 친환경 실천들에 관심이 있었다”, “지인의 추천으로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대답 하였다(농부 2, 4, 5, 7, 8, 10). 이는 남성 농부들이 “소규모 다품종 농사로 마땅한 판로가 없었고 ‘마르쉐@’가 대안이었다” 등의 판로 구축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농부 1, 3, 11, 15). 즉 농부시장의 참여 계기의 측면에서 남성 농부들은 농부시장을 경제활동의 장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 농부들은 농부시장을 먹거리 실천을 공유하는 장, 또는 사교의 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던 것이다. 물론 이런 경향성은 연구참여 농부들의 성별에 따라 완전히 나뉘는 것은 아니므로 성급히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는 오히려 연구참여 농부들의 이전 경험과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애적 경험이 젠더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일례로 여성 농부들에게 농부시장 이전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생태교육’이나 ‘도시농업’, ‘친환경 실천에 대한 까다로운 관심’, ‘생협 활동가 경험’ 또는 “기타 활동가 경험” 등이 있었음을 구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남성 농부들은 ‘마르쉐@’ 농부시장이 자리 잡은 이후 가담하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마르쉐@’를 통해 자연농법 등에 관심이 생기게 된 점을 구술하는 경향이 있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연구에 참여하는 농부들이 ‘마르쉐@’ 농부시장 참여를 계기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양태로 드러나는데, 본 절에서는 농부시장에서의 대화에 익숙해지는 방식에 주목한다.

일례로, 연구에 참여한 농부3의 경우, ‘마르쉐@’ 농부시장에 참여한 이후로 점점 “간지러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간지러운 말’이란 농부시장과 밭에서

마주하는 ‘꽃’, ‘논’, 또는 ‘밭’들이 아름답다거나, 건강하게 먹거리를 키워준 농부에 대한 감사라거나, 먹거리를 구입하는 손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말들은 먹거리와 체현된 경험에 대한 사소한 대화들에 익숙하지 않은 농부들은 건네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아래의 구술들은 이러한 대화에의 어려움, 그리고 ‘간지러운 대화’의 힘을 보여준다.

“도시 소비자들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중략)...(그렇지만) 한 번 나오면 굉장히 활력이 되어요.” (농부 7)

“시장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자주 듣게 되는데 어떻게 노력을 안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걸 꼭 짚어서 말은 못해도. 마르쉐 나가면 기분 좋지. 그런게 포함되는 게 아닐까?...(중략)... 여러 세대와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조심하거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운영진 5)

“농부는 흙과 씨앗에 대한 이야기, ‘農(농)’에 대한 이야기 등 포괄적인 내용과 정체성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여 다수에게 전달하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자신의 농사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씨앗밥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농사와 삶이 자신의 언어로 정리될 때, 농부의 정체성이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농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함께 한 요리사가 농부의 작물로 멋진 음식을 만들어 내고 함께 즐겁게 나눌 때, 농부의 얼굴이 빛나고 그들의 의식과 의욕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르쉐친구들, 2018)

여성 농부들은 그동안 사적 대화에 익숙한 존재로 여겨지며 시장에서의 판매를 전통적으로 담당해왔기 때문에, 공동 텃밭 가꾸기, 공동 육아-생태교육 등에 익숙했기 때문에, 소소한 먹거리를 챙겨 지인이나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비슷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시장에 나오는 일에 더 익숙했다. 여성 활동가들은 육아의 과정이나 체현된 몸의 경험을 대화로 나누는 것, 작물의 특징과 조리법을 나누는 것 등에 익숙했기 때문에 농부시장 공간의 구성에 있어 여성들의 필요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초기 농부시장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공간에 대한 모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어야 함”, “안전해야 함”, “소풍가 듯 기분 좋게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하는”, “대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치워보자”. (운영진 1, 2, 3, 6). 이러한 시장 공간에의 디자인은 또한 시장 공간을 돌봄-실천으로도 이어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 반면 이러한 인식은 여성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또는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과는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다.

“우리가 원하는 공간은 농부들이 온종일 앉아서 기분 좋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죠. 도로와는 구분된, 나무가 있는, 그래서 공원을 고수해왔죠. 이걸 도로로 둘러싸인 광장 하고는 다른 공간이잖아요.” (운영진 1)

이러한 농부시장의 특징은, 시장의 확장과 먹거리 주권 확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일으키는 주요한 전략으로 기능하며 여성 농부뿐만 아니라 여성 소비자들의 참여를 증진해 더욱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먹거리 실천에 관한 대화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었다. 일례로, 규제에 따르지 않고 다양한 공간적 시도를 감행한 덕에 농부시장은 서울시 공원관리국과 협의-결렬-대립의 과정을 거쳐 도시 숲에서 열리기도 하였으며, 시장 한쪽에 수유 천막을 만드는 등, 여성 참여자들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었다.

이러한 농부시장의 ‘돌봄-공간’으로서의 특이성은 다음과 같은 공간을 만드는 실천과 연결된다. 첫째, 시장 공간의 ‘안전’을 주관적인 ‘안전’에 대한 감각을 포함한 것으로 확대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곳, 온종일 ‘기분 좋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을 고수하고자 도시공원을 점거하는 등의 실험을 감행한다. 둘째, 시장에서 농부들의 농산물로 요리가 이루어지는 것의 생태 교육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는 요리와 취식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정부와 다양한 단계에서 협력하고, 농부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언어를 만들게 되는 계기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마르쉐@’ 농부시장은 꾸준히 농부시장의 대안성을 언어화하고, 제안하며 지자체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을 운영한 지 약 2년 반이 지난 2015년 ‘서울시민시장지원조례’가 제정되고, 2016년 ‘서울시민시장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제도와의 협력이 가능해지는 지점이 생겨난다. 이는 아래와 같이 시민 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현재 시민시장은 지속적·안정적 개최를 위한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식품의 판매가 금지 되어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원 내 상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시민시장의 개최를 위한 공간 확보와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시장 문화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16년 4월 26일 제출).

그러나 적합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공유되었음에도 ‘마르쉐@’ 농부시장이 꾸준히 제안해 온 “안전하고, 요리가 가능하며, 녹지가 있는” 공간에서 시장을 여는 것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협상에의 어려움이 농부시장에 대한 이해의 젠더적 차이에서 기인하였음에 주목한다. 여성들이 주로 이끌어온 ‘마르쉐@’ 농부시장은 다양한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일상적 실천을 연결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요리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 농부들의 중요성, 다양한 종자의 채소의 중요성,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의 중요성들을 여러 체현된 경험의 상호 교차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천들과 대화를 통한 체현된 경험에의 공유는 점차 시장구성의 필수적인 요인이 되어간 것이다. 반면 지자체의 관리자로서의 시선에서 도시형 농부시장의 중요성은 여전히 ‘등록 유기농작물의 직거래’로 소급되어 이해되고 있다. ‘마르쉐@’ 농부시장에 대한 관리자적/소급적 시각의 이해는 속도감 있게 농부시장의 수를 늘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은 ‘마르쉐@’ 농부시장이 쌓아온 충분한 대화를 통해 숙의 과정을 거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는 조직구성 방식과 문화와는 상충하는 것이었다. 다음의 구술은 이러한 한계를 설명한다.

“(이후에 생긴 다른 시장의) 남성활동가들이 “농부시장포럼”이라는 사업명을 바로 만들고, 조금 이해는 못하겠는데 굉장히 속도감있게 형식을 만들어가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자립 지향의 스톡토크를 하면서 굉장히 느리게 성장하는 시장이잖아요. 관계의 밀도도 다르고, 그 꼼꼼함이 다르고 비교 불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마이너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나 하는 생각 예전에 안 했는데, 요즘에 조금 했어요(운영진 1).”

우리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농부시장이 돌봄의 가치가 주요하게 거론되는 장소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돌봄의 가치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동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간을 돌보는 실천들은, 운영진, 자원봉사자, 출점팀원들, 손님들의 비가시화 된 노동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시장에서 일회용품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거지 대를 설치하고 다회용기를 씻는 것이나, 시장에서 나눌 수 있는 돌봄에의 경험을 각자의 일상에서 지속하고, 이를 시장에서 대화로, 혹은 지켜낸 토종 종자로, 다회 사용 가능한 물건들로 나누는 일은 ‘마르쉐@’ 농부시장의 대안성을 이끌어내온 중심에 있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들은 그동안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오던 것으로 가정 내 주부들의 일상적 실천이었으나, ‘마르쉐@’ 농부시장의 공간에서 풍부하게 재현되며 비로소 대안적인 먹거리 정치로 공식화된다. 다음의 구술들은 ‘마르쉐@’ 농부시장이 단순히 유기농작물을 거래하는 곳만이 아님을 드러낸다.

“이때는 마르쉐에서 여러 가지 콜라보도 시도했었어요. 농부팀과 꾸러미도 같이 했고, 요리사와 제철채소들을 이용하고 수공예작가들과는 작업복을 만든다든지 길가의 냉이꽃을 다발로 만들어서 판매도 했어요(출점팀 인터뷰, 출처: marcheat.com).”

“마르쉐@은 도시 공간에 대한 대안적인 상상력이기도 하다. 도심의 공원이 일시적으로 거대한 시장으로 변해 시민들에게 생활과 학습, 문화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르쉐@은 점차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예술가의 집’ 마당에서, 그리고 명동성당과 서울의 공원들로 시장 공간을 넓혀가고 있다. 농부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공간 실험은 도시와 농사의 관계 맺기이자,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공유지를 직접 창출한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이보은, 2016: 191).”

‘마르쉐@’ 농부시장은 기존의 거래를 중심으로 사유 되던 시장의 역할을 뛰어넘기 위해, 공간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간의 돌봄-실천들을 재현해 낸다. 구체적으로 마르쉐@ 농부시장은 지자체가 제시하는 도로로 돌

러싸인 ‘광장’들 보다는 나무 그늘이 풍부한 도시공원 또는 실내공간에서의 시장을 상상하고 재현해냈다. 또한,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시장 내부에서 만들어간다. 이러한 대화는 시장의 요리 부스에서, 농부들과 소비자들의 농작물을 매개한 대화에서, 또는 꾸며진 무대 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나아가 손님들은 더욱 친환경적인 먹거리 소비를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펼쳐 보인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로 자원하여 시장에서 사용되는 다회용 용기를 설거지하거나, 집에서 쓰지 않는 종이봉투를 모아오며, 다회용 용기에 담아 농작물을 사간다. 이러한 실천들은 멋진 장바구니나 농부들의 기억을 기반한 구슬로 시장의 안팎에서 드러나고, 반복적으로 다시 재현된다. 아래의 그림 IV-1, 2, 3은 이러한 ‘돌봄-공간’으로서의 특이성이 드러나는 ‘마르쉐@’ 농부시장의 장면들이다.



그림 IV-1, 2. 농부시장에서 설거지를 하는 봉사자들/ 농부와의 대화
(마르쉐친구들, 2014 © 고상석, 2014)



그림 IV-3. 안내판을 읽고 신중하게 분리수거하는 참여자들¹⁸⁾ ©저자촬영 (2019. 10. 13)

나. 먹거리 정치의 일상성과 젠더: 일상실천‘들’에 대해 대화하기

‘마르쉐@’ 농부시장 공간이 먹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의 실천들이 재현되는 공간이 되어감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점차 각자의 일상에서의 먹거리 실천과 ‘마르쉐@’ 농부시장을 연결짓기 시작하였다. 먹거리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며 농작물을 직접 기르거나, 농부들의 일손을 돕고, 밭에 남아도는 껏잎을 함께 거둬 껏잎 페스토를 만들어 나누고, 먹거리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하려는 일련의 먹거리 실천들은 ‘마르쉐@’ 농부시장이 열리는 일시의 공간과 시간에 묶인 것이 아니었다.

‘마르쉐@’ 농부시장은 ‘네트워크’로서 일상의 면면들을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에서의 먹거리 실천들은 ‘마르쉐@’ 농부시장의 공간에서 집합적으로 공유됨으로써 먹거리 실천에 대한 효능감으로 이어진다. 농부시장은 그동안 비공식화, 비정치화 되어있던 일상에서의 먹거리 실천을 일순간 공식화시키는 장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화의 과정에서 고취된 효능감은 다시 시장 참여자들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로서 농부시장의 성격을 ‘마르쉐@’ 운영진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구술은 마르쉐 보고서에 쓰인 공동체적 관계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표현한다.

“우리는 공동체 관계의 장이었던 본래 시장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삶의 토대를 이루는 ‘먹거리’를 통해 관계 맺고 대화하면서 단절되어있던 삶을 다시 ‘연결’ 합니다. 우리의 다른 삶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르쉐친구들, 2017: 59)

이렇듯 단절되어있던 먹거리를 통한 대화를 공적인 장소-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마르쉐@’ 농부시장의 주요한 정체성이 되어 자리 잡았다. 2014년 ‘마르쉐@’ 농부시장이 시장의 비전과 정체성을 “대화하는 농부시장 ‘마르쉐@’”으로 재정립한 것은 시장의 운영진들을 포함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마르쉐친구들, 2017). 이렇듯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마르쉐@’ 운영팀은 시장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대화의 기회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기획에 반영하게 된다. 아래의 표 IV-7은 대화를 만들어내는 ‘마르쉐@’의 프로그램들을 정리한 것이다.

18) 사진의 좌측으로는 옆쪽으로 천막과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시장의 풍경이 보인다.

표 IV-7. ‘대화’의 플랫폼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프로그램	특징	시기
농부/농부의 맛 워크숍	농사와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줄 사람들을 초대해 시장 한 켠에 열린 공간을 마련해 이야기를 이어간다. 시장에 방문한 사람들은 지나가며 듣는다 (그림 III-4 참조)	도시형 농부 시장이 열리는 날
제철 공연	대체로 환경이나 공동체에 대한 가사를 담은 노래를 만드는 음악가들이 초대된다. 혹은 시장에 활기를 가져다 줄 노래들이 운영진에 의해 엄선되어 공연된다. (그림 III-4 참조)	도시형 농부 시장이 열리는 날
책 한 그릇	먹거리와 환경문제에 대한 도서 및 이야기 소개하는 (북)토크쇼이다. 흥미로운 점은 책의 내용에 맞춘 먹거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이벤트가 함께 기획된다는 것이다.	도시형 농부 시장이 열리는 날
전시	‘마르쉐’ 농부시장의 대화모임의 결과, 폐기물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화 내용, 농부시장의 사진들, 토종 종자 및 작물들 등 계절과 필요에 맞춰 대화의 기록들을 전시한다	도시형 농부 시장이 열리는 날
농가행	농부들의 일손을 돕는 프로그램, 손님들과 운영진, 요리사, 수공예가들이 모여 일손이 필요한 농부님들을 돕는다. 이 과정에서 농사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농번기
채소반	채소시장이 열린 다음날 남은 채소를 소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 신청자들을 중심으로 같이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프로그램	‘합정 채소 시장’이 열린 다음 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시장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먹거리 실천 경험에의 재현의 무대들인 ‘농부/농부의 맛 워크숍’과 ‘제철 공연’, ‘책 한 그릇’, ‘전시’가 있다. 둘째로는 시장 밖의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인 ‘농가행’이 ‘씨앗밥상’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시장에서의 먹거리 생산과 소비과정에 관한 대화, 경험들을 토대로 시장 밖으로 실천들을 이어낸다. 앞서 서술했듯 이러한 시장 안과 밖에서의 프로그램들은 서로 연속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속’은 ‘마르쉐@’ 농부시장이 상호 친밀한 성격을 유지하며 보다 ‘정치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동력이 된다.

예를 들어, 농부들의 일손을 돕는 프로그램인 ‘농가행’은 정기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농부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꾸러지는 면이었다. 이는 ‘마르쉐@’ 운영진들 농부들의 일상에 대한 내밀한 관심, 서로를 살피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며, 나아가 농부시장에 오는 손님들을 비롯한 여러 참여자의 관심 그리고 농부들과 농부들의 논밭, 작물들에 대한 돌봄 노동에의 의지로 운영된다.

아래의 구술은 이러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살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운영진들은 출점 농부들과 수시로 안부를 주고받는다거나, 빠르게 모임을 꾸려 논과 밭으로 달려가 농사의 근황, 농부들의 일상을 살피고 오는 등의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었다(운영진 2, 3, 4, 5, 농부 2, 3, 4, 6, 7, 8, 9, 10, 13, 14).

“지나가는 말로 너무 바빠서 깃잎이 지천으로 자라도 딸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운영진들이 그새 <농가행> ... (으로) ... 밭에 일손을 도우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깃잎을 따서 깃잎페스트를 만들었죠. 그렇게 지나가는 말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게 정말 신기해요. 감사하죠”. (농부 2)

또한 ‘채소반’의 경우 시장에서 미처 다 팔리지 않은 작물을 버리지 않기 위한 연속적 먹거리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농부들을 중심으로 규모를 줄여 운영되는 ‘채소시장’이 합정 인근에서 열리고 난 다음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마르쉐@’ 사무실 근처 공유주방에서 열리는데, 지역 주민들에게서 미리 신청을 받아 함께 모여 전날 판매되고 남은 채소들로 반찬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봉사자 1은 ‘마르쉐@’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 계기를 이 채소반 프로그램으로 꼽으며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채소반에 다녀오면서부터 더 깊어진 것 같아요. 합정에서 일부러 산 것도 있고-남은 것. 구매해오셔서 신청 열 명정도 미리 받고, 같이 밥을 해먹는 모임인데 ... 동네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해먹는 것...그것도 사실 정말 모르는 사람들끼리 가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두 번째 갔을 때, 동네 사는 분을 알게 되었고. ... 연결 고리가 생겼어요 ... (그 후) ... 저희는 일 년 내내 갔거든요. (이게 계기가 되어) 음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을 살때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그게 왜 생겼는지를 알고 나면, 더 깊이 관여하게 되기도 하고.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그 분들(마르쉐 운영진들)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 (봉사자 1)

위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채소반’은 봉사자 1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르쉐@’의 운영에 참여하게 했다. 봉사자 1은 이후 농부시장에 판매 도우미, 봉사자 등으로 참여하고, 마르쉐 출점농부의 밭에서 텃밭을 얻어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고, 나아가 채소반에서 마음이 맞는 “동네 친구”와 동네에서 새로운 작은 시장을 기획 시작하게도 되었다고 구술한다(봉사자 1 과의 인터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마르쉐@’ 농부시장에서의 경험을 참여자들의 일상의 면면으로 스며들게 하고, 더욱 일상의 먹거리 실천들을 대안적인 양태로 바꾸어나가거나, 유지, 심화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간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운영의 간소화 또는 지출과 수입에 대한 계산 등, 조직운영의 재정적 실무적인 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런데도 ‘마르쉐@’ 농부시장이 이처럼 실천들을 일상으로 이어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참여자들 간의 연결을 만들어 내는 것, 더욱 대안적인 실천을 재현해 내는 것을 중요시한 것은, 이들의 축적된 여성으로서 환경운동 또는 대안적인 먹거리 실천에의 참여 경험에서 기인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빠른 제도화보다도 시장운영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중요시한 결과 ‘마르쉐@’ 농부시장은, “대화” 자체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이해한다. 또한, 이러한 대화들이 일상으로 이어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품이 드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마르쉐@’ 농부시장의 먹거리 네트워크로서의 대안성을 가시화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아래의 그림 IV-4, 5, 6은 ‘마르쉐@’ 농부시장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 시장에서 일상으로, 또다시 시장으로 연속성을 띠며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림 IV-4는 시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방법, 분리수거하는 방법 등을 그린 그림이다. 그림 IV-5는 일회용품 없는 장보기를 위해 출점 수공예팀이 만든 키트이고, 그림 IV-6은 각자의 일상에서 모아온 쓰지 않는 종이가방을 농부시장에 가져다 놓은 장면이다. 이처럼 ‘마르쉐@’ 농부시장은 먹거리의 소비과정을 시장공간의 안팎으로 확장적으로 이해하고, 소비의 과정이 먹거리 체계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숙의하게 한다. 나아가 먹거리 체계를 구성하는 면면을 드러내며, 개인의 실천들이 개입할 여지가 풍부함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 마르쉐친구들, 2014/ © 마르쉐친구들, 2017/ © 저자 촬영

그림 IV-4, 5, 6. ‘마르쉐@’ 농부시장의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실천들

다. 젠더 포용적인 먹거리 주권을 향하여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일상의 실천들과 연결된 먹거리 네트워크로서 ‘마르쉐@’ 농부시장이 그 대안적인 성격을 점차 분명히 해가는 과정을 밝힌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어떤 방식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색한다. ‘마르쉐@’ 농부시장은 앞서 서술한 다양한 시장 공간에서의 대안적인 먹거리 실천의 재현과 일상에서의 먹거리 실천을 연결하며 먹거리 체계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왔다. 나아가 참여자들은 점차 자신들의 일상에서의 실천을 설명할 언어들을 만들어가고, 또한 그들의 실천이 대안성을 유지하는 것의 의의, 어려움, 한계점들을 깨닫고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단일한 페미니스트 집단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페미니스트’ 등으로 호명되는 것에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한다(봉사자 1, 봉사자 2, 운영진 2, 3, 5, 요리사 2, 농부 2, 5).

반면 여성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익숙한” 방식으로 시장 공간을 돌보고, 또한 다른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가부장제와 빠른 성장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제도에 개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직적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리고 나아가 대안적인 실천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안적인 실천의 방법들을 종합해 보면 이는 ‘젠더 포용적인 먹거리 주권’을 향하고 있다. 이어 예시들을 통해 이와 같은 ‘마르쉐@’ 농부시장의 특이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운영진 2와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마르쉐@’ 농부시장은 어떤 시장인가?”에 대한 질문에 “농부들에게 제일 먼저 마이크가 돌아가는 시장”이라는 대답을 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렇듯 농부들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농부시장의 운영 방식은 여타 농부시장의 운영 방식에 비교했을 때 흔치 않은 일이다(농부 4, 5, 8, 운영진 1, 2, 4). 아래의 구술은 연구자의 다른 농부시장과 ‘마르쉐@’ 농부시장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시장마다 온도가 너무 달라요. 같이 만들어가는 시장이 있지만. 던져놓고 온다는 (느낌이 드는) 시장도 있었고. 참여자나 소비자도 다 느낄 것 같아요.” (농부 13)

“안부를 묻고, 감정의 교류가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 알죠. 생활공간이 조금 다르니까 오일장과 같은 친밀감은 아니겠지만, 더 긍정적인 것은 자기가 생산한 것은 지역에서 난 것을 가져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떼다가 팔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마르쉐’는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원형을 복원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부 5)

이러한 대답은 ‘마르쉐@’는 꾸준히 농부 워크샵, 책한 그릇, 농부들의 인터뷰를 담은 <채소지> 발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농부들의 농사 이야기, 대안적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모으는 것에 힘써왔음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온 ‘마르쉐@’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 공간에서는. 뭔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것을 어떤 기준을, 사람들의 편견이나 기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분명 이 꽃도 이쁘고, 이 나무도 이쁘고. 꽃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장미만 예쁜 것이 아닌데. 모두다 획일 적인 그런 기준에 부합하려고 하고. 쌍꺼풀 없애는 수술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코를 낮추는 수술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거기서 아 장미가 아니라 국화도 예쁘고, 할미꽃도 예쁘고, 호박꽃도 예쁘고, 너네 다 예뻐. 너네 다 다르게 예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공간인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봉사자 1)

농부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들으며 농부시장이 다양한 먹거리, 나아가 다양한 실천과 행위자들의 모습을 포용하며 대안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단숨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봉사자 2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마르쉐가 뭘 목적을 하고 있는지를 느끼고 깨달았던 것”에는 약 6년의 세월이 걸렸음을 구술하기도 한다.

“마르쉐에 참가한 것은... 소비자로서(?) 참여했던 것은 2013년 정도 처음으로 갔던 것 같고요. 혜화 처음으로 갔었고. 그때는 농부님들에게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공예품 팔고 음식 맛있는 것 팔고 신기한 물건 파는 것 위주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느끼고 깨달았던 것은 작년이예요”. (봉사자 2)

그러므로 빠른 의사결정이나 정책화를 뒤로하고 고집스럽게 다양한 숙의의 장을 만들어가며 시장을 개최하는 것이 농부시장의 대안적인 성격을 자리잡게 한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실천들은 먹거리 주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과 책임윤리의 고취로 이어졌다. ‘마르쉐@’ 농부시장은 “먹거리 주권”이라던가 “생태주의” 또는 “페미니즘” 등의 직설적인 구호를 위시하지 않지만, 대신 다양한 실천들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숙의의 장을 열어 ‘젠더 포용적인 먹거리 주권’에 다가갔다. 이렇듯 사적 영역에서 꾸준히 지속하여왔던 생산/재생산 경험을 대화를 통해 풍부하게 공유하는 장(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시장은 자연스럽게 젠더 포용적인 먹거리 주권 인식은 시장 안으로 녹아 들어갔다.

예를 들면, 다품종 소량생산을 유지하며 비닐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고 싶던 농부들에게 농부시장은, 새로운 판로일 뿐 아니라 토종 종자, 자연농법을 공유하는 배움의 장소이기도 했다. 또한, 농부와 요리사, 수공예가, 소비자들 간의 몸적 체험에 관한 대화는 자연과 인간의 다양한 관계 맺음 방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낳기도 했다. 아래처럼 운영진 3이 건넨 “학교”라는 표현은 이러한 ‘마르쉐@’ 농부시장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먹거리 실천에 대해 배우는 과정은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일으키기도 한다(농부 1).

“저희끼리 ‘마르쉐’는 “학교”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운영진 3)

“저는 원래 관행농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친환경농사를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채소를 소비해주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채소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농부 1)

다양한 먹거리 실천의 경험들 중에서 농부들의 이야기는 보다 적극적으로 꾸준히 축적되어왔다. 그리고 이는 점차 ‘먹거리 주권’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의 징검다리로 놓인다. 이를테면 ‘농부 워크숍’의 경우 점차 철에 따른 테마가 분명해졌고, 6월~7월 밀이 수확되는 시기에는 매년 <햇밀장>이라는 이름의 시장을 열고, 국내에서 우리밀을 소규모로 기르고, 수확하고, 제분하고, 나아가 이것을 빵으로 만드는 실천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햇밀 워크숍¹⁹⁾”을 3년째 이어오게 된다.

농부들은 자신이 길러온 다양한 토종씨앗과 작물을 계절별로 가지고 나와 전시를 하고, 소비자들과 동료 농부들, 요리사들, 수공예가들에게 그 맛과 향, 농법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소농들은 농산물 경매시장에 내놓았다면 터무니없이 낮게 측정되었을 작고 못생긴, 비료 없이 길러진 농산물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농부 1). 또한, 자신들이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고수해왔던 자연농법, 유기농법이 실제로 작물의 맛과 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지를 대화를 통해 파악하며, 자신의 사회적 효용감을 높이기도 한다. 다음의 구술은 이러한 자기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스스로가 이 시장에 참가하기 전에는 농사꾼이었어요. 지금은 농부라고 칭해요.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꾀이라는 게, 장사꾼. 비하시키는 의미이거든요. 아마 가장 최악체여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저는 ‘농부’. 농부로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런 삶이 된 것 같아요. ‘저 농부입니다.’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이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농부 1)

다른 한편으로, 축적된 대화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과 체현된 몸의 경험을 공유하게 하기도 한다. 특히 맛과 향, 그리고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화는 요리사, 농부, 소비자를 넘나들며 활발히 벌어진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농부들과 요리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고, 요리사들, 소비자들, 활동가들은 직접 농사짓기를 시작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각자의 위치를 넘나들며 농사로부터 오는 가치를 이해하는 시도는 농부시장을 계기로 점차로 깊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깊은 이해는 더욱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갈 필요성과 책임감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깊은 이해는 여성농부들을 상호 고취하게 해왔다. 여성농부들은 전통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수행해오던 토종 종자 지키기, 요리법 고민하기, 밭에 꽃 키우기, 땅을 돌보기 등에 대한 경험을 공적으로 전달하며 이중적인 주변화에서 벗어나

19) 2020년 햇밀장에서 열린 햇밀 워크숍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우리밀 농부, 제분사, 제빵사들이 모여 우리 밀 농사의 가능성과 어려움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우리밀을 기르는 어려움과 필요성에 대한 상호이해가 고취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집합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다음의 구술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낮선 농산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거 어떻게 먹어요? 하면. 내가 직접 해먹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이,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할 말이 되게 많죠. 남성들은 농사를 같이 짓지만, 요리까지 연결을 잘 못 시키잖아요. 농부시장에 여성 농부들이 많이 오는 이유 중 하나도, 직접 키운 것들은 요리까지, 어떻게 해먹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화에서도. 진짜 필요한 것들이 먹거리에서부터, 내가 해 먹는 것, 식생활이라면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게 여성 농부들이라고 생각해요.” (농부 8)

“OO농부님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지금 20대니까, 여성으로서, 농부로서, 사람으로서 50대의 나를 상상하면 ‘아 저렇게 살면 되겠다. 최고의 모습이다’ 했어요. 나중에 농사를 지으면 먹을 거를 나눌 수도 있고, 마음에 부족한 것 없이, 저렇게. 물도 따로 더 안쓰고, 자연의 비만 받아서 쓰고. 자연을 해하지 않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농부 13)

깊어진 책임감은 생산자들에게뿐 아니라 운영진과 손님, 수공예가와 요리사 등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작용한다. 농부시장의 횡수가 거듭될수록 구성원들은 여성농들과 소농들이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나아가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대안적인 먹거리 실천방식에 가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아래의 구술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상호 고취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농부 4의 가공에 대한 인식은 인터뷰에 따르면 운영진 5의 제안으로 OEM 정책을 알아보며 구체화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농부시장에서 먹거리 주권을 확충하기 위한 대안적인 실천들은, ‘먹거리 주권’이라는 단일 구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실천들에 대한 숙의로 심화되어 온 것이다.

“농산물 농민들이 가공을 하지 않고 일차 농산물만 팔아서는 정말 어려워요. 저희도 전통주나 스낵류 가공을 하고 싶거든요, 시장에 가지고 가면 반응도 좋고요. 그런데 또 가공을 하기 위한 진입장벽도 엄청 높죠. 소규모 가공은 참 살아남기도 어렵고요. 솔직히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농촌 상황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량 기업형 운영을 하지 않고서는” (농부 4)

이러한 과정을 통해 먹거리 주권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 됨에 따라 농부들은 자신의 일생과 농업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된다. 예를 들면, 농부들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기쁨, 사회적인 필요성,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을 보다 공고하게 이해하고 유지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농지와 저장시설의 규모를 대형화하지 않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점과 한계점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토로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으로 아래의 구술과 같이, ‘마르쉐@’ 농부시장이 다양한 대안적인 농업을 시행하게 하는 든든한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농부 1, 2, 3, 5, 7, 8, 10, 12, 14).

“향후 마르쉐에 기대하는 점은 살아남아야 된다. 네. 생존해야 된다. 그 느낌이에요. 앞으로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와 국가에게 바라는 점은. 재래시장처럼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는 재래시장에는 먹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허가가 많이 완화되어 있을 거예요. 요리도 그렇고. 불사용도 그렇고. 네. 그런 제약조건들이 많이 공원에서 완화되었으면. 그리고 꾸준히 활성화됐으면. 지속가능하게.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못하고 뭐 이런 데에서 오는 불안이 있어요”. (농부 1)

“처음에는 우리가 농업으로 생업을 만들어가고 이게 목표였다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는 거 같아요.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서. 농사를 왜 짓는가? 어디에서 농산물이 정말 풍성한 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회귀해서, 땅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고, 재미가 있는 거 같아요. 그 기반을 마련해준 농부시장에게 굉장히 고맙죠.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농부 14)

이처럼 주부, 먹거리 실천가들의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 농부시장은 점차 지역의 소농과 여성농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간다. 그뿐만 아니라 먹거리 주권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풍부한 ‘대화’를 기반으로 담아왔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얻고, 인간의 몸들이 자연으로서 다른 행위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눈으로, 귀로 듣는 과정은 구성원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도록 하는 동력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먹거리 실천의 윤리는 점점 미세하게 조정되어간다. 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또한 더욱 인간의 몸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다 농부와

소비자,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요컨대, ‘마르쉐@’ 농부시장은 다양한 실천들을 모으는 장을 열고, 그 다양성에 기반해 숙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운영 방식은 기존의 먹거리 주권 운동의 방식과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다. 또한, 그 전신으로서 축적된 네트워크와 전략을 제안한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이 이어온 규범적 가치나 논쟁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먹거리를 구입하고, 기르는 인간의 몸들뿐 아니라 농작물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몸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그에 관해 대화하며 보다 심도 있는 이해로 나아가게 하는 기틀이 되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시장의 운영 방식은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험을 과소정치화 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먹거리 주권을 향한 다양한 실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먹거리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열어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안먹거리네트워크의 독특한 사례인 ‘마르쉐@’ 농부시장을 중심으로 여성환경운동의 계보 위에서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가 구축되는 방식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사례인 ‘마르쉐@’ 농부시장은 여성과 환경의 ‘유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을 낳았던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국내로 도입되며 발전되어온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의 계보 위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계보 위에서 ‘마르쉐@’ 농부시장은 기존에 여성, 주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실천의 네트워크와 실천 전략들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과소 정치화되어온 먹거리 정치이자 먹거리 실천들을 도시 공간의 한 가운데로 불러들인다. 기존의 여성환경운동은 가정과 소농, 또는 여성 농업인들을 ‘생활협동조합’ 혹은 ‘공동체지원농업(CSA)’을 통해 연결하였는데, 이러한 연결공간을 매개로 일어나는 먹거리 실천들은 가정과 마찬가지로 다소 비가시화, 비공식화, 비정치화 된 ‘소비’의 연장으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도시 한 가운데에서 열린 ‘마르쉐@’ 농부시장은 이렇듯 비가시화 되어있던 먹거리 실천들을 도시 한 가운데로 불러모을 뿐 아니라, 시장을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먹거리 실천의 장으로 만들기보다 다양한 비인간과 인간의 집합으로서 상호이해와 연대, 그리고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숙의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이끌어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르쉐@’ 농부시장은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왔던 여성들과 소농들, 친환경적 먹거리 실천에 가담하는 요리사와 예술가들, 그리고 일상을 다양한 위치성을 갖고 살아가는 무명의 먹거리 실천가들을 의사결정과정으로 불러들이는 매개로 작동한다.

이렇듯 ‘마르쉐@’ 농부시장은 먹거리 네트워크로서의 특이성을 보이며 그 대안성을 숙의의 과정을 통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경험에의 전달을 통해 이어왔다. 이러한 ‘마르쉐@’ 농부시장은 먹거리 주권의 확립이라던가 소농 또는 여성농의 지원을 촉구하는 등의 결집된 사회운동의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마르쉐@’ 농부시장은 여성들의 참여와 실천의 가능성을 중시하고, 숙의의 장을 만듦으로써 당사

자성을 가진 현안들이 가능한 한 생생하게 의사결정구조 안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쉐@’ 농부시장을 만들어가는 여성환경운동은 기존의 생태여성주의 담론에 가해졌던 여성의 돌봄에의 책임을 가중한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실천의 양태와 다양한 위치성을 가진 행위자들과 관계성, 체현된 몸의 경험, 그리고 일상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페미니즘(또는 몸 페미니즘)적인 여성환경운동, 또는 문화 구성주의적 생태여성주의에 기반한 여성환경운동을 구축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마르쉐@’ 농부시장은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사상적 흐름의 전환을 탐색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대안먹거리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와 젠더, 또는 여성환경운동에 대한 연구 사이에 간극이 있었음에 주목하고, ‘마르쉐@’ 농부시장을 사례를 대안먹거리네트워크로서, 또한 젠더 관점에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마르쉐@’ 농부시장이 그동안 젠더화 되고, 비가시화 되던 먹거리 실천을 공식화시키며 동시에 단일한 젠더-여성성에 국한시키기 보다, 먹거리 실천가들의 다양한 위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속의의 장을 만들어 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시장을 운영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다양한 위치성을 가진 농부들이 정치적 자기효능감을 고취하고, 상호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이해하며 먹거리 주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보조하는 결과로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르쉐@’ 농부시장 운영의 특이성과, 여성 참여자들의 개입 양태는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몹시 특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농부시장이 제도화에 따르는 긴장 안에서 향후 얼마나 더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추가적인 연구들이 요청된다. 또한 ‘마르쉐@’ 농부시장을 여성환경운동으로 공고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쉐@’ 농부시장을 매개로 한 대안 먹거리 운동이 다른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여성환경운동 등과 어떠한 다양한 면에서 정치적 긴장을 가져왔는지를 또 다른 사례들과 연결지어 비교적 관점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구도완. (2006). 한국 환경운동의 담론: 낭만주의와 합리주의. *경제와사회*, 128-153.
- 김소연. (2020). 먹거리정의에 관한 탐색적 고찰: 이론적 쟁점과 실천적 함의. *농촌사회*, 30(2), 229-271.
- 김신효정. (2018). 씨앗, 할머니의 비밀: 할머니가 차린 토종씨앗 밥상과 달큰한 삶의 이야기, 소나무
- 김원동. (2010). “춘천 농민시장의 현실과 과제: 춘천 소양로”. *농촌사회*, 20(2), 81-115.
- 김원동. (2011). 도농통합형 생활공동체 형성과 지속가능성의 매개 공간으로서의 농민시장: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지역의 ‘농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Nongch'on Sahoe*, 21(2), 173-222.
- 김원동. (2014). 미국 북서부지역의 공동체지원농업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과 시사점: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광역생활권의 공동체지원농업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4(1), 201-254.
- 김원동. (2016). 미국의 농민시장과 공동체지원농업: 배태성의 관점에서 본 특징과 활성화 방안 탐색. *한국사회학*, 50(1), 75-117.
- 김원동. (2017). *농민시장의 사회학: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따비
- 김원동. (2018). 『농민시장의 사회학-미국사례를 중심으로』. 따비
- 김원동. (2020). 미국의 팜 스프링스 농민시장과 영국의 바쓰 농민시장 비교 연구. *농촌사회*, 30(1), 145-197.
- 김종덕. (2004). “미국의 공동체 지원농업 (CSA)”, *지역사회학*, 153-176.
- 김종덕. (2007). 지역식량체계에서 소비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 617-627.
- 김종덕. (2009). “한국의 대안 농업과 농촌의 미래. 쌀. 삶”, *문명 연구*, 3, 161-181.
- 김철규. (2008a). 현대 식품체계의 동학과 먹거리 주권. *환경사회학연구 ECO*, 12(2),

7-32.

- 김철규. (2008b).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먹거리 정치. 한국사회, 9(2), 123-144.
- 김철규. (2011). 한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과제: 농민장터와 CSA 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1), 111-133.
- 김철규·김진영·김상숙. (2012). 대안 먹거리운동과 한국의 생협. 지역사회학, 117-143.
- 김태완·김철규. (2016). 지역먹거리 운동 조직과 농민 생활의 변화. 농촌사회, 26(1), 117-156
- 김현철. (2015). “성적 반체제자와 도시공간의 공공성: 2014 신촌 쿼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51, 12-62.
- 김홍중. (2016). “청년 여성 프레카리아트의 얼굴-웹툰 미지의 세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0, 31-66.
- 김효정. (2011). ‘토종씨앗 지키기’운동을 통해 본 여성농민의 토착지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마르쉐친구들. (2013). 브로셔,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 자체발간 보고서
- 마르쉐친구들. (2014). 브로셔,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 자체발간 보고서
- 마르쉐친구들. (2017). 지속가능 보고서,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 자체발간 보고서
- 마르쉐친구들. (2018). 농부시장 아카이브, 사람, 시장, 동네.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 자체발간 보고서
- 마르쉐친구들. (2018). 브로셔,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 자체발간 보고서
- 마르쉐친구들. (2019). 2019 환경가이드,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 자체발간보고서
- 마르쉐친구들. (2019). 한국 농부시장, 농부시장포럼 준비모임 엮음
- 문순홍 (2001a). 생태민주주의 담론내 생태여성적 정치 논의의 지형 그리기, 「공간과 사회」, 16.
- 문순홍 (2001b). 「한국의 여성 환경운동-그 역사, 주체 그리고 운동 유형들」, 서울: 아르케
- 문순홍 (2002b). 생태여성론으로 분석한 한국 여성 환경운동-동기화 구조, 사회 공간내 운동 유형, 그리고 지향」, 「환경사회연구 ECO」, 2002.6, 63-96
- 문순홍 (2006). 생태학의 담론, 서울: 아르케
- 박민선. (2009). 초국적 농식품체계와 먹거리 위기. 농촌사회, 19(2), 7-36.

- 박영숙. (2008). 생활협동조합: 여성의 힘으로 만든 대안적 생산과 소비시스템, *여성운동 새로 쓰기*, 한국여성민우회 20년 운동사 연구위원회 엮음. 파주: 한울.
- 송원규. (2020). 한국 대안농식품 운동의 분기와 진화: 생협에서부터 푸드플랜까지 제도화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30(1), 97-143.
- 서울특별시. (2017).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2017년 06월
- 신필식. (2007). 환경농업 도입지역 여성농업인의 농업 양상과 성평등 의식 변화에 관한 성 분석(gender analysis) 및 생태여성주의적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울리히 벡.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나남
- 윤병선. (2015).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울력
- 윤병선·김선업·김철규. (2012). 원주 농민시장 참여생산자의 특성과 배태성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산업경제연구』, 25(3), 2279-2307.
- 윤병선·김철규·송원규. (2013). 한국과 일본의 지역먹거리운동 비교. 『농촌사회』, 23(1), 49-86
- 이보은. (2018). “행복을 교환하는 시장: 농부와 요리사, 수공예가들의 마르쉐@”,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혁명, 여성환경연대기획*, 서울: 도서출판 시금치
- 이보은·김송희·김미현. (2017) 농부시장(Farmers' Market) 마르쉐@의 지역 확산 모델 연구,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업기술과 농민 가공 및 유통, 2017. 235-292
- 이상화. (2011). 여성과 환경에 대한 여성주의 지식생산에 있어 서구 에코페미니즘의 적용가능성. *한국여성철학*, 16, 109-140
- 이해진. (2012). 소비자에서 먹거리 시민으로. *경제와사회*, 43-76.
- 임성은. (2013).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갈등 분석. *지방행정연구*, 27(1), 203-226.
- 정숙정. (2021). ‘여성× 농민’의 교차성: 여성농민의 불평등 경험과 정체성. *농촌사회*, 31(1), 93-153.
- 정은정·허남혁·김홍주. (2011). 텃밭 공간을 통해 본 여성과 장소의 정치. *농촌사회*, 21(2), 301-344

- 조효제. (2013). 먹거리 인권과 먹거리 주권의 시론적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 13(2), 267-301.
- 최하니. (2021).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의 존재의 지도: 정동적 관점으로 대안먹거리네트워크 사유하기.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허남혁. (2009). 생협 생산자 조직의 생산-소비관계 변화: 홍성 풀무생협 사례 연구. *농촌사회*, 19(1), 161-211.
- 허남혁. (2018). 현황과 과제: 농부시장과 먹거리혁명, 『*농부시장 아카이브, 사람, 시장, 동네*』, 마르쉐친구들 엮음. 2018.
- 홍동식. 1989. 『*농촌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국외문헌

- Agarwal, B. (1992). The gender and environment debate: Lessons from India. *Feminist studies*, 18(1), 119-158.
- Agarwal, B. (1997). "Bargaining" and gender relations: Within and beyond the household. *Feminist economics*, 3(1), 1-51.
- Agarwal, B. (2014). Food sovereignty, food security and democratic choice: Critical contradictions, difficult conciliations. *Journal of Peasant Studies*, 41(6), 1247-1268.
- Alkon, A. (2008). Paradise or pavement: the social constructions of the environment in two urban farmers' markets and their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justice and sustainability. *Local Environment*, 13(3), 271-289.
- Alkon, Alison and Kari Marie Norgaard (2009). "Breaking the Food Chains: An Investigation of Food Justice Activism" *Sociological Inquiry* 79(3): 289-305.
- Barad, K. (2003).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8(3), 801-831.

- 제인 베넷. 2020.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 문성재 역, 현실문화, Jane Bennett, [2010].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ke University Press
- Bethaney Turner & Cathy Hope (2014) Ecological connections: Reimagining the role of farmers' markets, *Rural Society*, 23:2, 175–187, DOI: 10.5172/rsj.2014.23.2.175
- Bezner Kerr, R., Hickey, C., Lupafya, E., & Dakishoni, L. (2019). Repairing rifts or reproducing inequalities? Agroecology, food sovereignty, and gender justice in Malawi.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46(7), 1499–1518.
- Biehl, J. (1991). *Rethinking Ecofeminist Politics*. South End Press.
- Blay-Palmer, A. (2016). *Food fears: From industrial to sustainable food systems*. Routledge.
- Boyer, J. (2010). Food security, food sovereignty, and local challenges for transnational agrarian movements: the Honduras case.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7(2), 319–351.
- Brown, A. (2001). Counting farmer's markets. *Geographical Review*, 91(4), 655–674.
- Brown, A. (2002). Farmers' market research 1940–2000: An inventory and review. *American journal of alternative agriculture*, 17(4), 167–176.
- Bubinas, K. (2011). Farmers markets in the post-industrial city. *City & Society*, 23(2), 154–172.
- Cairns, K., & Johnston, J. (2015). *Food and femininity*. Bloomsbury Publishing.
- Carney, M. (2012). Compounding crises of economic recession and food insecurity: a comparative study of three low-income communities in Santa Barbara County.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29(2), 185–201.
- Choe, S. S., Jeong, U. J., & Sim, U. (2013). 미국 농부시장 (Farmers' Market) 의 입지현황 분석. I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Conference* (pp. 13–16).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Colasanti, K. J., Conner, D. S., & Smalley, S. B. (2010). Understanding barriers to farmers' market patronage in Michigan: perspectives from marginalized populations. *Journal of Hunger & Environmental Nutrition*, 5(3), 316–338.
- Conner, D., Colasanti, K., Ross, R. B., & Smalley, S. B. (2010). Locally grown foods and farmers markets: Consumer attitudes and behaviors. *Sustainability*, 2(3), 742–756.
- Crespi-Vallbona, M., & Dimitrovski, D. (2016). Food markets visitors: a typology proposal. *British Food Journal*.
- Crespi-Vallbona, M., & Dimitrovski, D. (2017). Food markets from a local dimension – La Boqueria (Barcelona, Spain). *Cities*, 70, 32–39.
- Eastwood, D. B., Brooker, J. R., & Gray, M. D. (1999). Location and other market attributes affecting farmer's market patronage: the case of Tennessee. *Journal of Food Distribution Research*, 30(856–2016–57410), 63–72.
- Francis, M., & Griffith, L. (2011). The meaning and design of farmers' markets as public space an issue-based case study. *Landscape Journal*, 30(2), 261–279.
- Friedmann, H. and McMichael P. (1989), Agriculture and the state system: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al agricultures, 1870 to the present. *Sociologia Ruralis*, 29: 93–117.
- Giunta, I. (2014). Food sovereignty in Ecuador: peasant struggles and the challenge of institutionalization. *Journal of Peasant Studies*, 41(6), 1201–1224.
- Grosz, E. (1994). *Volatile bodies: Toward a corporeal feminism*. Routledge.
- Haraway, D. (1991).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Routledge.
- Hayden, J., & Buck, D. (2012). Doing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Tactile space, affect and effects of membership. *Geoforum*, 43(2), 332–341.
- Hinrichs, C. C. (2000). Embeddedness and local food systems: notes on two types of direct agricultural market. *Journal of rural studies*, 16(3), 295–303.
- Kerr, R. B. (2013). Seed struggles and food sovereignty in northern Malawi.

- Journal of Peasant Studies, 40(5), 867–897.
- Kerr, R. B. (2014). Lost and found crops: agrobiodiversity, indigenous knowledge, and a feminist political ecology of sorghum and finger millet in northern Malawi.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4(3), 577–593.
- Kerr, R. B., Hickey, C., Lupafya, E., & Dakishoni, L. (2019). Repairing rifts or reproducing inequalities? Agroecology, food sovereignty, and gender justice in Malawi.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46(7), 1499–1518.
- Kimura, A. H. (2010). Between technocracy and democracy: An experimental approach to certification of food products by Japanese consumer cooperative women. *Journal of Rural Studies*, 26(2), 130–140.
- Kimura, A. H., & Katano, Y. (2014). Farming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A feminist political ecology analysis of organic agriculture. *Journal of Rural Studies*, 34, 108–116.
- Kimura, A. H., & Nishiyama, M. (2008). The chisan–chisho movement: Japanese local food movement and its challenges.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25(1), 49–64.
- McMichael, P. (2008). “Food sovereignty, social reproduction, and the agrarian question”. In *Peasants and globalization: political economy, rural transformation and the agrarian question*, Edited by: Haroon Akram–Lodhi, A. and Kay, C. 288–311
- McMichael, P. (2009). A food regime genealogy.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6(1), 139–169.
- McMichael, P. (2014). Historicizing food sovereignty. *Journal of Peasant Studies*, 41(6), 933–957.
- Mies, M., & Shiva, V. (1993). *Ecofeminism*. Zed Books.
- Norgaard, Kari Marie and Richard York, 2005 “Gender Equality and State Environmentalism” *Gender and Society* 19(4): 506–522.
- Norgaard, Kari Marie. 2007 “The Politics of Invasive Weed Management: Gender

- Race and Risk Perception in Rural California” *Rural Sociology* 72(3): 450–477.
- Norgaard, Kari, Ron Reed and JM Bacon 2018. “How Environmental Decline Restructures Indigenous Gender Practices: What Happens to Karuk Masculinity When There Are No Fish?” *Sociology of Race and Ethnicity* 4(1): 98–113.
- Oliver, B. (2016). “The Earth Gives Us So Much”: Agroecology and Rural Women's Leadership in Uruguay. *Culture, Agriculture, Food and Environment*, 38(1), 38–47.
- Patel, R. (2006). Transgressing rights: La Via Campesina’s call for food sovereignty. *Feminist Economics* 13(1): 87–93.
- Patel, R. (2009). Food sovereignty.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6(3), 663–706.
- Patel, R. C. (2012). Food sovereignty: power, gender, and the right to food. *PLoS Med*, 9(6), e1001223.
- Rosin, C., Stock, P., & Campbell, H. (Eds.). (2013). *Food systems failure: The global food crisis and the future of agriculture*. Routledge.
- Rosset, P. M., Machín Sosa, B., Roque Jaime, A. M., & Ávila Lozano, D. R. (2011). The Campesino-to-Campesino agroecology movement of ANAP in Cuba: social process methodology in the construction of sustainable peasant agriculture and food sovereignty.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8(1), 161–191.
- Schanbacher, W. D. (2010). *The politics of food: the global conflict between food security and food sovereignty*. ABC-CLIO.
- Schanbacher, W. D. (2010). *The politics of food: the global conflict between food security and food sovereignty*. ABC-CLIO.
- Singh, N. M. 2001. Women and Community Forests in Orissa: Rights and Management. *Indian Journal of Gender Studies*, 8(2), 257–270.
- Slocum, R. (2008). Thinking race through corporeal feminist theory: divisions and intimacies at the Minneapolis Farmers' Market. *Social & Cultural*

Geography, 9(8),

849–869. <https://doi.org/10.1111/j.1467-8276.2008.01220.x>

- Smithers, J., Lamarche, J., & Joseph, A. E. (2008). Unpacking the terms of engagement with local food at the farmers' market: Insights from Ontario. *Journal of Rural Studies*, 24(3), 337–350.
- Starr, A. (2010). Local food: a social movement?. *Cultural Studies? Critical Methodologies*, 10(6), 479–490.
- Turkkan, C. (2019). Clean foods, motherhood and alternative food networks in contemporary Istanbul. *Gender, Place & Culture*, 26(2), 181–202.
- Via Campesina. (1996). The right to produce and access to land Voice of the Turtle.
- Wittman, H. (2011). Food sovereignty: a new rights framework for food and nature?. *Environment and Society*, 2(1), 87–105.
- Wittman, H., Desmarais, A., & Wiebe, N. (2010). The origins and potential of food sovereignty. *Food sovereignty: Reconnecting food, nature and community*, 1–14.

안내문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재)숲과나눔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